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공 백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사회에서 가출청소년들의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은 청소년가출이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 외에 일반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보편화되고, 그 시작시기가 매우 빨라지고 있어서(남영옥, 2001) 보다 큰 우려를 갖게 한다. 더욱이 청소년들의 가출은 단순히 집을 떠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업중단과 생활비 마련에 따른 부적절한 경제활동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비행으로 발전될 확률이 높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방은령, 2003a). 실제로 2000년도에 실시한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조사에 의하면, 중고등학생의 약 15%가 가출을 경험하고, 70%가 넘는 청소년들이 가출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구본용, 2003), 가출한 경우 청소년들이 경찰이나 사회보호망에 의해 보호자에게 인계되거나 보호시설에 수용된 경우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가출청소년들은 사회의 지도체제에서 벗어나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 방은령(2003a)도 가출청소년 지도는 기본적으로 상담과 보호기능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1) 경찰청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가출발생건수는 59099명이고 이 가운데 보호자에게 인계된 건수는 17503명이며 보호시설에 수용된 경우는 1029명이다. 나머지 40567명은 행방을 알 수 없는 수배상태로 남아있었는데, 이것은 대부분의 가출이 사회적인 지원체제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물론 이것은 모든 연령집단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20세미만의 사례수가 18442명이고, 전체 수용건수가 1029명임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가출청소년들도 사회적으로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가출청소년대부분이 처음 집에 돌아온 후 다시 가출을 하고 장기가출과 상습가출의 빈도가 증가한다는 일련의 연구 결과들(김향초, 1998: 이은정, 2000: 한상철, 1999: 한은신, 2000)을 볼 때, 현재와 같이 청소년의 가출이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못하면, 청소년 한 개인의 발달은 물론 그들이 구성원인 우리사회도 건강한 삶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가출 청소년들의 문제가 심각한 요즘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함은, 우리사회가 하루속히 진행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 동안 가출청소년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가출청소년들의 가출요인과 실태를 파악(김경희, 2002 : 류용옥, 2001: 이은정, 2000: 임막례, 2000: 정운숙, 2002: 한국청소년상담원, 2001, 구본용, 2003 재인용)하거나, 청소년쉼터에서의 서비스 개선 및 사회사업, 혹은 집단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권중달, 2002 : 김지은, 2002, 유한규, 2002 : 유승권, 2002)하는데 관심이 모아졌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대부분 청소년들의 가출동기에 초점을 두고, 이들이 야기 시킨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도 중요하지만, 가출청소년지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가출청소년들을 가정에 복귀시키는 일이라고 할 때, 이제는 이들의 가출원인과 이들이 사회적으로 야기시키는 문제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가출청소년들을 가정에 돌아가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즉, 가출 청소년들이 가정에 안정된 복귀를 하여 청소년기동안의 발달과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청소년들이 처음 가출을 한 후 가정에 복귀하고도 대

부분 다시 가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을 볼 때, 가출청소년들이 집에 돌아온 상태에서 또다시 가출하지 않도록 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가출청소년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한 방법은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중 현재 안정적으로 가정에 복귀한 가출청소년들의 가정복귀과정을 연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청소년기에 가출을 경험하였으나, 가정복귀를 통해 현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두고 이들의 귀가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연구대상자들의 가출경험을 역으로 추적하여, 어떠한 요인이 이들을 귀가하게 만들었고, 성공적으로 가정생활에 정착하게 하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안정적으로 가정에 복귀한 가출청소년들과 가출청소년지도를 위해 현장에서 전문적인 개입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가출청소년들의 가출경험과 가정복귀요인 및 바람직한 지도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출청소년들을 지도할 때 이들의 가정복귀시기를 앞당기고,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삶을 증진시키는 대처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문헌 연구와 경험적 연구로 구성되었다.

1) 문헌연구

가출청소년들의 개념·원인·유형과 가출청소년실태와 사회

지원체계 등에 관한 문헌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한다.

2) 경험적연구

① 가출청소년 전문가 면접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관련 교수 등 가출관련 전문가들을 통해 가출청소년들의 가출실태와 가정복귀요인 및 지도방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② 심층면접 대상자선발을 위한 예비조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해 대학입학이전 가출경험과 가정복귀과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③ 가정복귀가출청소년에 대한 심층면접 및 심리검사

위의 ②의 결과를 토대로 대학입학이전 가출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을 선정, 연구대상으로 섭외하여 심층면접 및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하여 이들의 심리적 특성과 가출과정 및 가정복귀과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귀가요인을 분석한다.

④ 가출청소년을 위한 가정복귀지도 방안 제시

위의 1) 과 2) ①②③을 통해 나타난 결과(귀가요인)를 토대로 가출청소년들의 가정복귀지도방안을 모색하여 제안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가출의 개념과 원인 및 유형
2. 청소년의 가출 및 가정복귀실태 및 지도현황

공 백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가출의 개념과 원인 및 유형

1) 가출청소년의 정의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부모,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집을 떠나서 24시간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는 18세 미만의 청소년(나동석, 이용교 ; 1991), 자신 및 자신을 둘러싼 주위환경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에서 비롯된 문제점에 대한 반발이나 해결을 위해 보호자의 승인 없이 최소한 하룻밤 이상 무단으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청소년으로서 자발적으로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부모의 태도나 행동에 의해 떠나라는 압력을 받은 자(권윤아, 1997), 개인 및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동기에서 집을 나온 후 하룻밤 이상을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18세까지의 청소년(이은정, 2000),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이탈하는 길을 선택할 능력이 있는 7세에서부터 민법에서 미성년자로 정해져 있는 20세 미만의 남녀로서 부모 또는 보호자의 통제에서 벗어나 불량한 환경에서 비행가능성을 안고 독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자(이정자, 1973),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집을 나와 최소한 하룻밤을 지낸 가출 청소년(runaway), 일정한 주거지 없이 부모나 대리 양육자 혹은 제도적인 보호에서 제외된 집 없는 청소년(homeless youth), 부모나 양육책임자로부터 버려지거나 내쫓겨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로 살아가는 버려진 청소년(throwaway), 장기간 가출하거나 집이 없거나 집에서 버려져서 이젠 거리에서 스스로 먹을 것을

해결하며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는 길거리 청소년(street youth), 아동기나 청소년기 동안 학대, 방임, 기타 여러 형태의 심각한 가정문제가 인정되어 정부나 기관의 보호양육을 받는 보호체계청소년(system youth) (미국 전국가출청소년서비스 네트워크, 1985 : 김경희, 2002 재인용), 부모의 방임이나 가정내의 문제로 인해 집을 떠난 만18세 이하의 도벽, 학대, 약물남용, 정서장애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유한규, 2002) 등이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의들이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가출청소년은 청소년기 동안 하루 또는 그 이상 부모의 동의 없이 집을 이탈하여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2) 청소년의 가출원인 및 유형

(1) 가출원인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게 되는 일반적인 원인은 개인적 요인과 가족요인 및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가출을 유도하는 개인적 특성으로는 낮은 충동통제력, 낮은 자아개념, 인내력 및 의지력 부족 등의 성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개인의 정신 병리적 현상에 비추어 볼 때 비가출 청소년들에 비하여 가출청소년들은 더 많은 심리적·정신적 이상 혹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알려지고 있다(이은정, 2000).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청소년 가출을 발달 단계상의 욕구가 만족되지 않는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정운숙, 2002),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고, 규범성이 부족하며, 불안이 높고, 지나치게 방어적이며, 충동적 공격적이고, 통제력이 약한 개인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김향초, 1998 : 나철, 1992 : 유한규, 2002: 정운숙, 2001: 표갑수, 1996 : 한상철, 2003. Greeno & Ringwalt, 1996 : Sharlin & Mor-Barak, 1992).

그러나 청소년가출은 무엇보다도 가족요인과 가장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방은령, 2003a). 청소년들은 가족으로부터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출을 생각하게 되며, 실제로 체벌 혹은 모욕을 당하거나, 가정불화가 심할 경우, 가출을 하는 경우가 많다(김혜례, 1985 : 임막례, 2001: Ek & Steelman, 1988). 청소년 쉼터에서 일시보호를 받은 가출청소년들의 경우를 보아도 가출의 원인이 가족요인 (약 70%), 친구요인(약 12%), 학교요인 (약 7%), 개인요인(약 5%)으로 나타나, 가족요인이 가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방은령 2003a). 가족요인 중에서는 특히 구조적 결손, 잘못된 부모의 훈육방법(특히 자녀 학대), 가정폭력, 빈곤, 가족간 의사소통부재 등이 자녀의 가출을 증폭시키며(김양희, 1995 : 남영옥, 1998 : 도수경 , 1991 : 류용옥, 2000 : 이은정, 2000· 이혜심, 2001: 한상철, 2003 : 한은신, 2000), 친구요인으로서는 또래의 승인과 압력, 친구의 비행정도 등이 청소년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은정, 2000· 이중근, 1992: 이혜심, 2001 : 한상철, 2003 : 한은신, 2000)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또래관계나 친구집단은 청소년기에 중요한 준거집단이 되며 정보교환의 통로가 되므로 가출에 대해 이들이 어떠한 가치기준을 내리느냐와 가출에 대해 어떤 정보를 교환하느냐가 가출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진학을 위한 입시준비 위주의 교육과 지식위주의 주입식 교육 및 시험성적에 의한 단편적인 평가, 그리고 인간적인 교제가 어려운 학급환경 등은 청소년들을 숨 막히게 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와 가정으로부터 이탈하

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이은정, 2000). 또한 학교 요인 중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이며 학생들이 이러한 유해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이를 매개로 비행행동을 하기도 한다. 반면에 우리사회의 혼돈된 가치관과 소비 지향적인 향락 문화도 청소년가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구로청소년쉼터, 1999).

한편, 청소년들의 삶에서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것도 가출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방은령, 조성연, 2002). 즉, 사이버 공간의 특성인 즉시성과 익명의 집단행동 및 채팅을 통한 가출조장 등이 청소년가출 증가의 원인으로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2) 가출 유형

청소년 가출의 유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별될 수 있다. 먼저 가출동기에 따라 탈출형과 추구형이 있는데, Homer(1973)는 개인이나 가족문제로부터 도망치는 청소년(탈출형 : runaway from)과 모험, 쾌락, 새로운 경험을 찾고자 하는 청소년(추구형 : runaway to)을 구별하였다(권중술, 2002, 재인용). English(1973)는 집을 떠난 기간에 따라 뜨내기(The Floaters : 집을 떠나는 것을 즐기지만 48시간 내에 복귀), 반복가출자(The Recurrent Runaways : 가족으로부터 관심을 끌거나 문제 상황에서 도피하기 위해 가출), 및 심각한 거리족(The Hard Road Freaks : 집과의 관계를 일절 끊고 방랑생활을 함)을 구별하였고(이은정, 2000, 재인용), Stierlin은 문제정도에 따라 미수성(가족과의 심리적 결속이 강해 몇 시간 내에 귀가함), 분열성(정신장애로 인한 가출), 우발성(충동적 가출), 위기성(위기로 인한 탈출

형 가출) 가출로 구별하고 있다(홍봉선, 남미애, 2000).

한편, Miller(1980)는 부모요인과 아동요인에 의해 가출유형을 구별하면서 부모요인에 의한 가출은 희생자, 추방자, 반항자로 묘사하고, 아동요인에 의한 가출은 도망자, 피난자, 이민자로 표현하고 있다(김향초, 1998, 재인용). 또한 Orten과 Soll(1980)은 가출행위의 내면화 정도에 따라 1급 가출청소년, 2급 가출청소년, 3급 가출청소년으로 나누었고(이은정, 2000, 재인용), 이용교는 탈출과 가출을 구별하여 단순탈출, 만성탈출, 단순가출, 만성가출로 구별하고 있다(홍봉선, 남미애, 2000).

2. 청소년의 가출 및 가정복귀실태 및 지도현황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 2477명을 대상으로 조사(2000, 구본용, 2003, 재인용)한 바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약 15%가 가출을 경험하였고, 70%가 넘는 청소년들이 가출충동을 느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이 연령층(13세-18세)의 청소년인구(청소년백서, 2002)를 기준(청소년백서(2002)에서 제시한 통계청자료는 2001년 7월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이 자료에 의하면 13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인구는 약 385만명이다)으로 볼 때, 약 58만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1회 이상의 가출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방은령, 2003 a). 경찰청자료(청소년백서, 2002)에서도, 가출청소년의 수가 해마다 18000-19000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것은 신고에 의한 통계치로서, 실제 가출청소년의 사례는 최소한 10만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방은령, 2003 a).

청소년들의 가출은 청소년들이 단순히 집을 떠난 것으로 끝

나는 것이 아니라, 학업중단과 생활비마련에 따른 부적절한 경제 활동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비행으로 발전될 위험이 높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더욱이 최근의 청소년가출의 특징은 가출시작시기가 점차 빨라지며(남영옥, 2001), 한번 가출을 하면 대부분 재가출을 한다는 것과 장기가출 및 상습가출의 빈도가 증가하고 (김향초, 1998 : 이은정, 2000: 한상철, 1999 : 한은신, 2000), 즉흥적,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데 (김향초, 1998 : 이은정, 2000), 그 심각성이 더하다(방은령, 2003a).

현재 가출청소년들 중 가정에 복귀하는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으나 청소년백서(2002)에 의하면, 2001년도를 기준으로 전국 22개소의 청소년쉼터에서 보호를 받은 가출청소년 3182명 중, 1325명이 가정에 복귀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 그러나 이것은 청소년쉼터에서 일시적 보호를 받은 후, 가정에 복귀한 사례를 보고하는 것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 이들이 이후 가정에 안정되게 정착을 하였는지, 혹은 다시 가출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가출청소년들은 가출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중 실제로 가정에 안정되게 정착한 경우는 이보다 훨씬 더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출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주요 기관으로는 청소년 쉼터와 청소년(종합)상담실(이하, 청소년상담실) 및 지역사회(종합)복지관(이하, 지역사회복지관)을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도적으로 가출청소년을 위해 설치된 전문기관은 청소년쉼터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 49 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출청소년들을 임시보호하고 선도하는 청소년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령에서 규정한 청소년

년쉼터의 기능은 가출청소년에 대한 일시보호와 상담활동이며, 시설종사자 또한 청소년상담사가 포함되도록 권장하고 있다(방은령 2003a). 실제로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에 소속된 22개소의 청소년쉼터에서 2001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상담활동내용을 보면, 연인원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전화상담(8771건), 거리상담(17684건), 내방상담(11073건), 집단상담(16291건), PC상담(1881건), 서신상담(528건), 심리검사(2099건) 등이 총 58,327건으로(청소년백서, 2002), 청소년쉼터에서의 상담활동은 그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또한 청소년기본법 제49조에서는 청소년쉼터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귀가중재 및 숙식제공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프로그램 자체가 일시적 보호로 그치고(15일전 후), 시설 또한 양적으로 매우 부족하다는 점(2002년 기준, 전국22개소, 청소년보호위원회, 2003)과,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용인원이 극히 제한적이며(10명내외), 지역사회전체의 상호정보교류와 공동대응을 위한 네트워크가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지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쉼터에서 제공되는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보호활동과 치료활동으로 구별되는데, 대전 청소년쉼터의 경우, 1회에 약 5-8명의 여자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5일간 숙식제공과 일상생활리듬회복을 위한 보호활동 및 개별, 집단, 부모, 진로 등의 상담과 자기개발을 위한 역할극 등의 치료활동을 제공하고 있다(대전 청소년쉼터, 2003).

그러나 청소년쉼터가 가출청소년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로는 청소년쉼터가 지역사회에 충분히 보급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전문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방은령, 2003a).

한편, 청소년상담실의 경우는, 청소년기본법 제61조와 시행령 제 63조에 의거하여 생활권 중심의 실질적인 청소년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125개의 광역시, 시, 군, 구에서 청소년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낮 시간 동안만 상담실이 운영되고, 가출청소년들이 상담실에 내방할 때에만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출청소년들을 지도하기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방은령, 2003a).

또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보사부훈령 568호 : 89.6.29)에서도 청소년복지사업의 내용 중, 청소년상담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 기관에서 가출청소년에 대한 상담활동은 극히 미약할 뿐더러, 전문상담인력도 대부분 배치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가출청소년을 다루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파악된다(방은령, 2003 a : 방은령 2003 b).

실제로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지도는 가출청소년발견에서부터 보호 및 사후처리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제도적으로 확립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가출 및 청소년 서비스 전국네트워크(National Network of Runaway and Youth Services)가 구축되어 (약 1000여개의 관련서비스기관이 참여), 관련서비스입법화를 위한 활동, 관련서비스 종사자 연수, 관련 프로그램 및 기술적 도움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위험한 상황에 놓은 청소년들을 위한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을 잘 통합하여 총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또한 YMCA 전국산하에 청소년대안센터(The Center for Youth Alternatives)를 설치하고, 주거프로그램, 안전보호소 프로그램(Safe Place Program), 가족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밖에 브리지 프로

그램(The Bridge), 텍사스 코브넌트 하우스(Covenant House Yexas), 국립가출전화(National Runaway Switchboard)등이 전국적인 규모 혹은 지역단위로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구본용, 2003 : 김향초, 2000 : 방은령 2003 a 제인용).

이와 같이 가출청소년지도가 효과가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전반이 참여하여 가출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즉시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연결망이 구축되어야한다. 이를 통해서 상담이나 귀가를 중재하고, 숙식제공, 문화공간, 정보센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출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공 백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조사도구
3. 자료처리

공 백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① 예비조사를 위한 대학생 ② 현재 가정에 복귀하고 정착한 가출경험이 있는 대학생 ③ 가출청소년전문가이다. 본 연구에서 가정복귀 가출청소년들을 대학생으로 제한한 것은, 선행연구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들의 가출원인은 대학입시와 일부 관련이 있고 또한 우리사회의 이론적 혹은 사회 통념적으로 ‘대학입학과 적응’을 청소년기 발달과업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이다. 즉, 대학생들은 객관적으로 볼 때 위와 같은 측면에서의 발달과업을 수행했다고(혹은 수행하고 있는)볼 수 있으므로 대학생이 되기 이전에 가출을 경험한 경우, 이들이 안정적으로 가정에 복귀하여 발달과업을 무난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심리적 특성과 이들이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 가정에 복귀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가출청소년들에게 보다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가정복귀지도방안을 모색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은,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한 청소년 연령 상한선인 만 24세 이하의 자로 제한하였다.

1) 예비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먼저 심층면접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113명), 인천(131명), 경기(131명), 대전(91명), 충남(85명)지역의 대학생 570명을 대상으로 가출경험에 대한 질문지를 실시하

였다. 조사대상자 중 남학생은 212명이고 여학생은 358명이었다. 맨 처음 질문지는 총 680부가 배포되었으나(서울 140부 : 인천 150부: 경기 150부: 대전 120부 : 충남 120부) 회수된 질문지는 597부였고, 이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응답지는 제외하여 최종 570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해당 지역의 대학교 교수·강사에게 전달되었고, 대학 강의실에서 수업시간 중 담당 교수에 의해 배포·수거되었다. 예비조사는 대학생들의 가출경험 실태를 파악하고 심층면접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사전에 연구자는 해당 교수에게 연구의 성격을 설명하고, 조사대상자들의 양해 하에 조사대상자들이 유기명으로 질문지에 응답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해당교수들은 연구자의 의도와 이 질문지가 심층면접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조사대상자들에게 설명한 후 유기명으로 응답하도록 양해를 구하였다.

2) 심층면접대상 가정복귀 가출청소년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된 심층면접대상 대학생은 모두 12명이다. 예비조사결과 응답자 총 570명 가운데 2회 이상의 가출경험이 있는 응답자 23명 중 심층면접을 허락한 사람 1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본 연구자 및 보조 연구원이 가정복귀 가출청소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진행하였다. 사전에 연구자는 이들에게 면접내용을 알리고, 면접수용여부를 타진하였으며, 면접 승낙을 받은 대학생에 한해 면접 날짜를 약속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장소는 연구자의 연구실과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의 학생생활상담소 및 면접대상 학생의 대학교 빈 강의실 등이었다. 면접소요시간은 피면접자별로 각각 1시간 내외였으며, 면접내용은

피면접자의 양해 하에 보이스 펜으로 녹음하여 기록하였다.

심층면접 대상 청소년들의 인적사항은 < 표 1 >과 같다.

<표 1> 가정복귀 가출청소년 심층면접대상자 인적사항

	S1	S2	S3	S4	S5	S6	S7	S8	S9	S10	S11	S12
성별	여	남	남	여	여	남	남	남	남	여	남	여
연령	23	20	24	19	20	24	22	23	23	20	19	22
지역	인천	경기	충남	경기	인천	경기	충남	경기	충남	충남	대전	인천
가출회수	10회 이상	10회 이내	10회 이내	2회	2회	10회 이상	10회 이상	2회	2회	2회	2회	6회
첫가출 시기	중2	중2	중2	중3	중3	고1	중2	중3	중2	중2	고졸 후	중2
최종가정 복귀시기	고2	고2	고2	고3	고2	고3	고2	고2	고2	고1	고졸 후	고2

* S1-S12는 가정복귀 가출청소년 심층면접대상자의 고유번호임

3) 심층면접대상 가출청소년전문가

본 연구에서 면접을 실시한 가출청소년 전문가는 10명으로 이들은 가출청소년상담전문가 9명과 가출청소년연구전문 교수 1명이었다.

면접은 본 연구자가 가출청소년전문가를 개별적으로 만나 진행하였다. 사전에 연구자는 이들에게 면접내용을 알리고, 면접수용여부를 타진하였으며, 면접 승낙을 받은 전문가에 한 해, 면접 날짜를 약속하여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내용은 면접 3-7일전에 피면접자에게 전달하였다. 면접장소는 연구자의 연구실과 한국청소년상담원 본원(서울) 및 한국청소년상담원 교육관(서울)이었고, 면접소요시간은 피면접자별로 각각 1시간 내외였으며, 면접내용은 피면접자의 양해 하에 보이스 펜으로 녹음하여 기록하였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 대상 가출청소년전문가들의 인적사항은 < 표 2>와 같다.

<표 2> 가출청소년전문가 인적사항

피면접자 인적사항	C1	C2	C3	C4	C5	C6	C7	C8	C9	C10
성별	남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여
학력	박사 과정	박사	박사 과정	박사 과정	석사	석사	석사	석사	박사	박사
가출청소년지도경 력	10년 이상	5-10 년	5-10 년	5-10 년	5-10 년	5-10 년	5-10 년	10년 이상	5-10 년	5-10 년
지역	서울	서울	충남	경북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충남	경북
분야	상담	상담	상담	상담	상담	상담	상담	상담	상담	교육

*C1-C10은 피면접자를 나타내는 고유번호임.

2. 조사도구

먼저, 가정복귀 가출청소년을 선정하기 위한 예비조사에서는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본 연구자에 의해 제작되었고, 가출경험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응답하도록 3개의 유형으로 구성되었다. 즉, 질문지는 먼저 응답자가 가출경험의 유무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A-가출경험이 있는 경우와 B-가출을 생각해 본적도 없는 경우 및 C-가출충동은 느낀 적이 있으나 실행한 적은 없는 경우 등에 따라 3가지 유형의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A유형의 응답지만이 필요하므로 질문지응답 결과 가출경험이 있는 경우에 대한 응답자료(A형)만을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예비조사 후 가출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면접대상으로 선정하여 심층면접과 심리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에 대한 심층면접의 내용은 처음가출을 하게 된 과정과 최종적으로 가정에 복귀하게 된 과정 및 가출청소년 지도를 위한 대책에 관한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면접내용은 <표 3>과 같다. 한편 이들에 대한 심리검사는 연구자의 학교상담실과 면접대상자의 학교강의실에서 이루어졌으며, 심리검사는 연구자의 학교상담실 상담원과 연구자가 실시하였다. 심리검사에 사용된 검사지는 3가지로서 성격유형을 알아보는 MBTI와 자아상태를 알아보는 Egogram 및 성격장애의 여부를 알아보는 MMPI를 심리검사도구로 사용하였다.

한편 가출청소년전문가에 대한 심층면접내용은 가정복귀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질문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구성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3> 청소년대상면접의 질문구성과 내용

구성	내용
첫가출에 대하여	처음 가출했을 때 가출 원인
	처음 가출했을때 가출지속기간
	처음 가출 후 지낸 곳
	처음 가출 후 가정에 복귀한 이유
재가출에 대하여	재가출을 한 이유
	평균적인 재가출기간
	재가출 후 지낸 곳
	재가출 후 도움을 받은 곳
	재가출동안의 생활비 마련

안정된 가정복귀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가정에 복귀한 시기
	최종적으로 가정에 복귀하게 된 이유
	대학진학을 하게 된 이유
	가정복귀 후의 자신의 변화
가출청소년지도방안에 대하여	가출하는 동안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점
	가출하는 동안 가장 어려웠던 점
	사회에 존재하는 가출청소년에게 가장 위험한 요소
	가출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출청소년지도를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

〈표 4〉 가출청소년전문가 대상 면접의 질문구성과 내용

구성	내용
첫가출에 대하여	(청소년이)처음 가출할 때 가출 원인은 무엇인가?
	처음 가출할 때 가출지속기간은 얼마인가?
	처음 가출하면 어떤 경험을 하는가?
	처음 가출 후 가정에 복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처음 가출후 가정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재가출에 대하여	재가출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재가출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평균적으로 재가출하는 회수는 어느 정도인가?
	가출회수에 따라 가출지속기간은 달라지는가?
	가출할 때마다 가출원인은 달라지는가?
	처음 가출하는 청소년과 가출경험이 많은 청소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가출상태에 있는 청소년이 가정에 복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안정된 가정복귀에 대하여	가출을 여러번 경험한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가정에 복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안정된 가정복귀의 원인은 무엇인가?
	가정복귀 후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가?
가출청소년지도방안에 대하여	가출청소년지도에서 효과적이었던 접근 방법은 무엇인가?
	가출청소년지도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가출청소년지도를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가?

3. 자료처리

1) 예비조사질문지

문항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2) 심리검사

심리검사요강에 따라 결과를 처리하였다.

3) 심층면접자료

가정복지 가출청소년과 가출청소년전문가에 대한 심층면접은 면접내용을 녹음하고 기술한 후, 질문에 따른 내용분석을 하였다.

공 백

IV. 연구결과

1. 예비조사결과
2. 심층면접대상자들에 대한 면접결과
3. 가출청소년전문가에 대한 심층면접결과

공 백

IV. 연구결과

1. 예비조사결과

본 연구에서 가정복귀 가출경험청소년들을 선별하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출경험에 대한 질문지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예비조사대상자의 성별과 연령범위 및 가출경험 유무

< 표5 >를 보면,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 중 가출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약 11%(570명 중 6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자인 경우 전체의 약 7%(338명 중 22명)가 가출경험이 있는 반면, 남자인 경우는 전체의 약 26%(167명 중 43명)가 가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자에 비해 남자가 청소년기 동안 가출경험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 > 예비조사대상자의 성별과 연령범위 및 가출경험 유무

	여(N=360)	남(N=210)	전체(N=570)
가출경험 무	338	167	505
가출경험 유	22	43	65
평균연령	20.40	20.98	20.61
표준편차	2.37	2.76	2.54
연령범위	18-24	18-24	18-24

2) 가출경험 대학생들의 가출경험내용

예비조사결과 나타난 가출경험이 있는 대학생 65명의 자료를 토대로 가출경험 내용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처음 가출을 한시기

<표 6>을 보면, 가출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이 처음 가출을 했던 시기는 중학교 시기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시기 동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학교 이전시기에 첫 가출을 경험한 경우도 7명(10.8%)이나 있었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에 첫 가출을 경험 한 경우도 7명(10.8%)이나 있었다.

<표 6> 처음 가출을 한 시기(N=65, 100%)

	빈도(여/남)	비율
중학교 이전	7 (2/5)	10.8
중학교	27 (12/15)	41.5
고등학교	24 (6/18)	36.9
고등학교 졸업 후	7 (2/5)	10.8

② 처음 가출을 하게 된 이유

<표 7>을 보면 조사대상자들이 첫 가출을 하게 된 원인은 가정불화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65명 중 26명, 40%). 특히 여학생의 경우 22명 중 15명(68%)이 가정불화 때문에 가출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의 심리적 요인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청소년기 가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반면 남학생의 경우, 친구의 유혹이나(43명 중 7명) 기타의 이유(43명 중 20명)를 든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여학생에 비

해 남학생의 가출원인이 보다 더 다양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 7> 처음 가출을 하게 된 이유(N=65, 100%)

	빈도(여/남)	비율
가정불화	26(15/11)	40.0
친구유혹	10(3/7)	15.4
돈을 벌려고	1(0/1)	1.5
공부가 싫어서	5(2/3)	7.7
기타	23(3/20)	35.4

③ 첫 가출에서의 가출지속기간

<표 8>을 보면 조사대상자들이 첫 가출에서 지낸 시간은 2-3일 동안인 경우(65명 중 23명, 35.6%)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하루 만에 집에 돌아온 경우(65명 중 20명, 30.8%)가 가장 많았다. 또한 대부분의 가출경험자들은 처음 가출을 했을 때 1주일 이내(83.1%)에 집에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첫 가출 지속기간(N=65, 100%)

	빈도(여/남)	비율
하루	20(10/10)	30.8
2-3일	23(5/18)	35.4
일주일내	11(3/8)	16.9
일주일이상	11(4/7)	16.9

④ 첫 가출동안 지낸 곳

<표 9>를 보면, 조사대상자들이 처음 가출을 하여 머문 곳은 친구집(65명 중 25명, 38.5%)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거리배회(65명 중 21명, 32.3%), PC방(65명 중 14명, 21.5%) 및 여관(65명 중 5명, 7.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첫 가출 동안 지낸 곳 (N=65, 100%)

	빈도	비율
거리배회	21(7/14)	32.3
PC방	14(5/9)	21.5
친구집	25(10/15)	38.5
여관	5(0/5)	7.7

⑤ 첫 가출 후 집에 돌아온 이유

<표 10>을 보면, 조사대상자들이 처음 가출 후 집에 돌아온 이유는 부모님이 찾아서(65명 중 28명, 43.1%) 돌아온 경우가 가장 많으며, 그 외에 있을 곳이 없어서(65명 중 14명, 21.5%), 돈이 떨어져서(65명 중 5명, 7.7%), 가출생활이 무서워서(65명 중 4명, 6.2%) 등의 이유로 집에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첫 가출 후 집에 돌아온 이유(N=65, 100%)

	빈도(여/남)	비율
부모님이 찾아서	28 (13 /15)	43.1
돈이 떨어져서	5 (2 /3)	7.7
가출생활이 무서워서	4 (3 /1)	6.2
있을 곳이 없어서	14 (1 /13)	21.5
기타	14 (3 /11)	21.5

⑥ 가출한 동안 생활비 마련

<표11>을 보면, 조사대상자들은 가출한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여(65명 중 28명, 43.1%) 생활비를 마련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비행을 저지르거나(65명 중 12명, 18.5%), 집에서 충분히 돈을 가지고 나와 생활(65명 중 10명, 15.4%)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가출한 동안 생활비 마련 (N=65, 100%)

	빈도	비율
집에서 충분히 갖고 나옴	10 (5/5)	15.4
아르바이트를 해서	28 (7/21)	43.1
친구의 도움	9 (2/7)	13.8
비행을 저지름	12 (6/6)	18.5
쉼터등 공공기관의 도움	4 (2/2)	6.2
기타	2 (0/2)	3.1

⑦ 가출한 동안 청소년쉼터의 도움을 받은 경험

<표 12>를 보면, 조사대상자들이 가출한 동안 청소년쉼터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65명 중 단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청소년 쉼터가 있는 줄 몰랐다고 응답(65명 중 44명, 67.7%) 하였으며, 찾아갔지만 시설이 부족하여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경우(65명 중 6명, 9.2%)와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주변에 없었다(65명 중 1명)는 반응도 있었다.

〈표 12〉 가출한 동안 청소년쉼터의 도움을 받은 경험 (N=65,100%)

	빈도(여/남)	비율
무반응	13(8/5)	20.0
도움을 받았다	1(1/0)	1.5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주변에 없었다...	1(0/1)	1.5
그런 곳이 있는 줄 몰랐다	44(10/34)	67.7
찾아갔지만 시설이 부족했다	6(3/3)	9.2

⑧ 가출한 동안 청소년상담실의 도움을 받은 경험

〈표 13〉을 보면, 조사대상자들이 가출한 동안 청소년상담실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65명 중 단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65명 중 50명, 76.9%)은 청소년상담실이 있는 줄 몰랐다고 응답하였으며, 찾아갔지만 문이 닫혀있었다고 응답한 경우(65명 중 1명)와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주변에 없었다는 반응(65명 중 1명)도 있었다.

〈표 13〉 가출한 동안 청소년상담실의 도움을 받은 경험 (N=65, 100%)

	빈도 (여/남)	비율
무반응	12 (7/5)	18.5
도움을 받았다	1 (1/0)	1.5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주변에 없었다.	1 (1/0)	1.5
그런 곳이 있는 줄 몰랐다	50 (13/37)	76.9
찾아갔지만 문이 닫혀 있었다	1 (0/1)	1.5

⑨ 가출한 동안 경찰서의 도움을 받은 경험

〈표 14〉를 보면, 조사대상자들이 가출한 동안 경찰서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65명 중 3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도움을 받을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응답(65명 중 51명, 78.5%)하였으며,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주변에 없었다는 반응(1명)도 있었다.

<표 14> 가출한 동안 경찰서의 도움을 받은 경험 (N=65,100%)

	빈도	비율
무반응	9	13.8
도움을 받았다	3	4.6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주변에 없었다	1	1.5
도움을 받을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51	78.5
기타	1	1.5

⑩ 가출한 동안 종교단체의 도움을 받은 경험

<표 15>를 보면, 조사대상자들이 가출한 동안 종교기관의 도움을 받은경우는 65명 중 5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종교기관의 도움을 받을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으며 (65명 중 50명, 76.9%), 찾아갔지만 문이 닫혀 있었다는 반응도 있었다(1명).

<표 15> 가출한 동안 종교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험 (N=65, 100%)

	빈도(여/남)	비율
무반응	9(6/3)	13.8
도움을 받았다	5(4/1)	7.7
도움을 받을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50(12/38)	76.9
찾아갔지만 문이 닫혀 있었다	1(0/1)	1.5

⑪ 조사대상자들의 재가출 경험 유무

본 연구에서 가출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 65명 중 재가출경험이 있는 사람은 모두 23명이었고(33.8%), 이 중 여자는 22명 중 7명(32%), 남자는 43명 중 16명(3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은 처음 가출 후 집에 돌아온 후 안정적으로 가정에 정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5명 중 42명, 66.2%).

〈표 16〉 조사대상자들의 재 가출 경험 유무 (N=65, 100%)

	빈도(여/남)	비율
있다	23(7/16)	33.8
없다	32(15/28)	66.2

⑫ 재가출 경험자들의 평균 재가출 회수

재가출 경험이 있는 23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재가출 회수는 2회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23명 중 10명), 그 외에 3-6회(23명 중 6명), 7-10회(23명 중 4명)가 많았으며, 가출회수가 수도 없이 많았다고 응답한 경우도 3명이나 있었다.

〈표 17〉 평균 재가출 회수 (N=23, 100%)

	빈도(여/남)	비율
2회	10(4/6)	43.5
3회~6회	6(1/5)	26.1
7회~10회	4(1/3)	17.4
수도 없이 많다	3(1/2)	13.0

⑬ 재가출경험자들이 재 가출을 한 이유

가출경험자들이 첫 가출 후 집에 돌아온 뒤 재 가출을 하게 된 원인은 가정불화 때문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23명 중 9명), 친구의 유혹(2명)이나 돈을 벌려고(2명) 재가출을 한 경우도 있었으며, 그냥 습관이 되어서 자꾸 하게 됐다(1명)고 응답한 사람도 있었다.

〈표 18〉 재 가출을 한 이유 (N=23, 100%)

	빈도	비율
가정불화	9	39.1
친구유혹	2	8.7
돈을 벌려고	2	8.7
공부가 싫어서	1	4.3
그냥 습관이 되어서	1	4.3
기타	8	34.7

⑭ 재가출을 한 경우, 평균 가출지속기간

재가출의 경우, 평균 가출지속기간은 일주일 이상 한달이내가 가장 많았고(23명 중 10명, 43.5%), 그 다음 으로 일 주일이내가 많았으며(23명 중 9명, 39.1%), 평균 한달이상 가출을 하였다는 사람도 3명이나 있었다(13%).

〈표 19〉 재가출을 한 경우, 평균 가출지속기간 (N=23, 100%)

	빈도 (여/ 남)	비율
하루	1(0/1)	4.3
일주일이내	9(2/7)	39.1
한달이내	10(5/5)	43.5
한달 이상	3(0/3)	13.0

⑮ 재 가출 기간 동안 주로 지낸 곳

< 표 20>을 보면, 재가출경험자들이 재가출 기간 동안 주로 지낸 곳은 친구집(23명 중 10명), 일터(23명 중 4명), 공터나 거리(23명 중 2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재가출 기간 동안 주로 지낸 곳 (N=23, 100%)

	빈도(여/남)	비율
공터나 거리	2(1/1)	8.7
주유소 등 일터	4(0/4)	17.4
친구집	10(4/6)	43.5
기타	7(2/5)	30.4

3) 가출청소년들이 최종적으로 가정에 복귀하게 된 과정과 대학에 진학하게 된 계기

예비조사결과 나타난 가출경험자 65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최종적으로 가정에 복귀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가출 청소년들이 최종적으로 집에 돌아온 시기

< 표 21>을 보면 가정 복귀가출청소년들이 최종적으로 집에 돌아온 시기는 고등학교 2학년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와 고교 졸업 후 가정에 복귀한 경우가 전체의 66.1%(65명 43명)를 차지하였다. 한편 중학교 시기동안 안정된 가정복귀를 한 경우도 13명이나 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첫 가출 후 재 가출을 하지 않고 가정에 안정된 복귀를 한 경우였다.

〈표 21〉가출경험자들이 최종적으로 집에 돌아온 시기 (N=65, 100%)

	빈도 (여/남)	비율
무반응	9 (4/5)	13.8
중학교	13 (6/7)	20.0
고1	9 (3/6)	13.8
고2	16 (5/11)	24.6
고3	10 (3/7)	15.4
고교졸업 후	8 (1/7)	12.3

② 가정에 안정된 복귀를 하게 된 이유

가정복귀 가출청소년들이 최종적으로 가정에 돌아오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스스로 깨달아서 가출생활을 청산하고 가정에 복귀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65명 중 22명), 이 경우는 모두 최종 가정복귀시기가 고등학교 시기동안에 이루어진 경우였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는 부모님의 노력에 의해 가정에 복귀하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22명 중 7명), 그 다음으로 스스로 깨달아서 가정에 복귀한 경우가 많았으며(22명 중 4명), 종교의 힘에 의해 가정에 복귀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도 1명 있었다. 반면, 남학생의 경우는 스스로 깨달아서(43명 중 18명) 가정에 복귀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부모님의 노력으로(43명 중 11명) 가정에 복귀하게 되었다는 경우가 많았으며, 청소년쉼터의 도움(43명 중 1명)으로 가정에 안정된 복귀를 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도 1명 있었다.

〈표 22〉 최종적으로 가정에 복귀하게 된 원인 (N=65, 100%)

	빈도 (여/남)	비율
무반응	9(5/4)	13.8
부모님의 노력	18(7/11)	27.7
쉼터의 권유	1(0/1)	1.5
가출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6(3/3)	9.2
스스로 깨달아서	22(4/18)	33.8
종교의 힘으로	1(1/0)	1.5
기타	8(2/6)	12.3

③ 가정복귀 후 대학진학을 하게 된 계기

가출청소년들이 가정에 복귀한 후 다시 공부를 하여 대학에 진학하게 된 계기는 다음 <표 23>과 같이 나타났다. 65명 중 34명(52.3%)이 ‘내 인생을 위해서’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부모님이 원해서 대학에 진학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도 65명 중 14명(21.5%)이 있었다. 또한 남학생 중 4명은 공부가 하고 싶어서 대학에 진학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23〉 공부(대학진학)를 다시 하게 된 계기 (N=65, 100%)

	빈도(여/남)	비율
부모님이원해서	14(5/9)	21.5
내인생을 위해	34(12/22)	52.3
공부가하고싶어서	4(0/4)	6.2
기타	13(5/8)	20.0

4) 가출청소년을 위한 지도 방안모색을 위하여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가출경험대학생들에게 가출청소년을 위한 지도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우리사회에서 가출청소년들에게 가장 위험한 요소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출청소년들에게 가장 위험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조사대상자들은 <표 24>와 같이 응답하였다. < 표 24 >를 보면, 가출경험 청소년들은 가출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너무 쉽게 할 수 있다는 것(65명 중 22명, 33.8%)과 비행집단의 유혹(65명 중 21명, 32.3%)이 가출청소년들에게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 지적하였다. 그 외에 가출청소년들의 집단생활(3명), 24시간 통행을 허용하는 제도, PC방 운영(3명), 인터넷(2명) 등을 가출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위험요소로 지적하였다.

<표 24> 우리사회에서 가출청소년들에게 가장 위험한 요소(N=65,100%)

	빈도(여/ 남)	비율
비행집단의 유혹	21(3/18)	32.3
가출청소년들의집단생활	6(4/2)	9.2
손쉬운아르바이트	22(10/12)	33.8
24시간 통행	3(1/2)	4.6
PC방	3(1/2)	4.6
인터넷	2(0/2)	3.1
기타	8(3/5)	12.3

② 가출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출경험 대학생들은 가출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숙식을 제공하는 보호시설(65명 중 18명, 27.7%)과 건전한 일터(65명 중 17명, 16.2%), 및 24시간 상담시설(65명 중 13명, 20.0%)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청소년들의 통행시간을 부분적으로 제한해야한다고 지적한 사람도 있었다(65명 중 3명).

〈표 25〉 가출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N=65, 100%)

	빈도(여/남)	비율
숙식을제공하는보호시설	18 (5/13)	27.7
24시간 상담시설	13 (5/8)	20.0
건전한 일터	17 (6/11)	26.2
청소년통행제한조치	3 (1/2)	4.6
종교	2 (2/0)	3.1
기타	12 (3/9)	18.4

2. 심층면접대상자들에 대한 면접결과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 결과 나타난 재 가출경험이 있는 응답자 23명 가운데 12명을 심층면접대상자로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은 개별심리검사와 개별면접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심리검사결과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대상자들에게 MBTI 와 Egogram 및 MMPI를 실시하였다. 이 들에 대한 심리검사결과는 <표 26>과 같다.

〈표 26〉 심층면접 청소년대상자들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

면접대상자 심리검사	S1	S2	S3	S4	S5	S6	S7	S8	S9	S10	S11	S12
MBTI	ISTJ	ENFP	ISFP	ESTJ	INFJ	ESFP	ESFP	ISTJ	ESFP	ENFP	ISTJ	INFP
Egogram (우위)	NP, FC	NP, FC	NP,FC AC	NP,A FC	NP AC	NP FC	NP FC	NP A	NP,A FC	A,FC, AC	NP FC	NP FC
MMPI 1. LFK 2.임상 척도	1.정상 2.정상	1.정상 2. Ma	1.낮은 삿갓형 2. D, Hy,Pa	1.V자 2.정상	1.정상 2.Hs Hy	1.정상 2.정상	1.정상 2.정상	1.정상 2.정상	1.V자 2. Hs	1.정상 2.정상	1.정상 2.정상	1.정상 2.정상

〈표 26〉을 보면, 먼저 MBTI의 경우, 심층면접대상자들의 성격유형은 외향-내향(E-I)지표에서는 E와 I 선호경향이 각각 6명씩 나타났고, 감각-직관(S-N)지표에서는 S 선호경향이 8명, N 선호경향이 4명이었으며, 사고-감정(T-F)지표에서는 T 선호경향이 4명, F 선호경향이 8명이었고, 판단-인식(J-P)지표에서는 J 선호경향이 5명, P 선호경향이 7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본 연구의 심층면접대상자들인 가정복귀 가출청소년들의 경우, 에너지가 발산하는 방향은 자기내부로 향하거나(내향성: I) 외부로 향하는(외향성 : E) 유형의 사람이 반반이나, 인식의 기능은 육감내지 영감에 의존하여 미래지향적이고 가능성과 의미를 추구하며 신속 · 비약적으로 일처리를 하는 유형의 사람(직관형 : N)에 비해, 오감에 의존하여 실제의 경험을 중시하며 지금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정확하고 철저하게 일처리를 하는 유형의 사람(감각형 : S)이 조금 더 많았다. 또한 판단기능에서는 진실과 사실에 주 관심을 갖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유형의 사람(사고형 : T)보다 사람과 관계에 주 관심을 갖고 상황적이며 정상을 참작한 설명을 하는 유형의 사람(감정형 : F)이 더 많았다. 한편, 생활양식을 보는 판

단-인식지표에서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갖고 기한을 엄수하며 철저히 사전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생활하는 유형의 사람(판단형 : J)보다는 목적과 방향은 변화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달라지며 자율적이고 융통성 있게 생활하는 유형의 사람(인식형: P)이 조금 더 많았다.

두 번째로 Egogram 검사 결과를 보면, 심층면접대상자 12명 중 11명이 NP(Nuturing Parent)가 우위로 나타나 이들 대부분이 마음이 선하고 타인을 돌보기 좋아하며 상대를 받아들이거나 공감하는 능력이 좋고 봉사정신이 풍부하며 약한 자를 두둔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 표 26 >을 보면 NP와 함께 FC(Free Child)가 우위로 나타난 경우가 12명 중 9명으로 나타나 NP 성향의 자아상태와 함께, 감정적이고 호기심이 강하며 활발하고 창조성이 강해 놀기 좋아하고 마음먹은 것은 행동으로 잘 옮기며 자기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자아상태를 가진 자유분방한 유형의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이 NP와 FC가 우위인 경우, 일반적인 Egogram 조건표에서는 비행소년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자아상태로 해석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NP와 FC가 우위인 경우는 비행소년에 대한 예후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S3의 경우는 NP와 함께 AC(Adopted Child)가 우위로 나타났는데 이 경우는 마음이 온화하면서도 순종적이어서 의존심이 높고, 어리광을 잘 부리며, 자기부정적이고 타인을 많이 의식하는 등의 자아상태를 나타내게 된다. 또한 S8은 NP와 A(Adult)가 우위로 나타나 따뜻한 마음과 함께 냉정하고 합리적인 자아상태도 동시에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S10과 같이 FC와 AC가 우위로 나타난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자기긍정적인 자아상태와 자기부정적인 자아상태

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못 बे기면서도 열등감이 강해 주위사람들의 언동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이기 쉬운 상태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MMPI 검사결과에서는 심층면접대상자 모두 비교적 정상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타당도척도에서는 S3만이 낮은 삿갓형을 나타내며 F척도에서 T점수가 71점으로 중간수준의 정서적인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S3은 또한 임상척도에서도 척도 2(D : 우울증), 척도 3(Hy 히스테리), 척도 6(Pa, 편집증)에서 T점수 70이상의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상황적 스트레스 결과로 인해 정서적으로 고통스럽고 의욕이 저하되어 있으며, 자기파괴적인 인지과정을 나타내고, 지나치게 자기자신을 억제하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며(D). 또한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부인(denial)과 억압을 일삼고, 권위적인 대상(부모, 교사, 학교, 국가 등)과 충돌이 많으며, 감정변화가 심하고, 신경증적 방어와 정신내적인 문제에 대한 각성이 부족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Hy). 또한 이러한 사람은 타인을 의심하고 경계하며, 타인에 대한 불평이 많은 성향이 있고, 분노가 특정 인물에 집중되어 있는 성향을 나타내기도 한다(Pa). 그 외 S2는 임상척도 9(Ma : 경조증)에서, S5는 임상척도 1(Hs : 건강염려증)과 척도 3(Hy : 히스테리)에서, 그리고 S9는 임상척도 1(Hs)에서 T점수가 7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9의 경우는 타당도 척도에서 V자형을 나타내어 문제를 부인하고 회피하려는 성향과 faking-good이 강한 사람으로서 신체화증상을 자주 호소할 수 있는 사람으로(Hs) 분석되었다. 그러나 MMPI 검사 결과 S3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성격에 장애가 있는 면접대상자들은 없었으며, 타당도척도(LFK)와 임상척도(1-0)에서 대부분 정상적인

수치를 나타내었다.

2) 가정복귀 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개별면접결과

① 첫 가출시의 경험 : 원인, 지속기간, 가출장소, 가정복귀이유

심층면접 청소년 대상자들에게 처음 가출을 하게 된 원인을 물어본 결과 2명을 제외한 10명이 가정불화 때문에 집을 나가게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간의 갈등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7>을 보면, S3만이 친구의 유혹에 의해 처음 가출을 하게 되었다고 반응하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부부싸움, 가정폭력, 소원한 가족관계, 가족갈등 등과 같은 가정불화 때문에 집에 있기 싫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 표 28 >을 보면, 처음 가출에서의 지속기간은 10일 이상 지속된 경우도 있었으나(S3, S4, S6), 대개는 가출 후 3일 이내에 집에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가출 지속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이들은 가출하여 거리를 배회하면서 지낸 경우가 가장 많았고(S1, S5, S7, S9, S10, S11, S12), 친구집에서 보낸 경우는 3명(S2, S4, S8)이었다. 그러나 가출지속기간이 10일 이상인 경우(S3,S4, S6)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S3,S4), 여관이나 PC방에서 지낸 것으로(S6) 나타났다. 한편 심층면접대상 청소년들은 처음 가출 후 집에 돌아오게 된 이유를, 대개 있을 곳이 마땅치 않아서(S1,S2, S7, s8, S9, S11) 스스로 돌아왔거나, 부모님이 찾아서(S3, S4, S5, S10) 돌아왔다고 진술하였고, 가출생활이 무서워서(S12), 혹은 가출생활이 싫증이 나서(S6) 집에 돌아왔다고 진술한 경우도 있었다.

〈표 27〉 심층면접 대상자들이 처음 가출을 하게 된 원인

피면접자	가출원인
S1	부모의 이혼, 부와 동거, 부와 갈등
S2	가정불화, 부와 모간의 갈등
S3	가출한 친구가 유혹
S4	가정불화, 부와 모간의 갈등
S5	부모별거, 가정불화
S6	가정불화, 부부싸움, 가정폭력
S7	집이 싫고 갑갑해서
S8	집이 싫고 갑갑해서, 가족원간에 소원한 관계
S9	가정불화, 부부싸움, 가정폭력
S10	가정불화, 부부싸움, 부모와 자녀간 갈등
S11	가정불화, 부와 갈등
S12	가정불화, 부부간 갈등

〈표 28〉 첫가출에서 가출지속기간, 가출장소 및 가정복귀이유

피면접자	지속기간	가출장소	가정복귀이유
S1	1일	거리배회, 공원	있을 곳이 없어서
S2	3일	친구집	있을 곳이 없어서
S3	보름정도	중국집 아르바이트	부모님이 찾아서
S4	10일정도	친구집, 음식점	부모님이 찾아서
S5	1일	거리배회	부모님이 찾아서
S6	10일정도	여관, PC방	가출이 싫증이 나서
S7	2일	거리배회, 공원	있을 곳이 없어서
S8	3일	친구집	있을 곳이 없어서
S9	3일	거리배회, 공원	있을 곳이 없어서
S10	1일	거리배회	부모님이 찾아서
S11	3일	거리배회, PC방	있을 곳이 없어서
S12	2일	거리배회	가출생활이 무서워서

- ② 재가출 경험 : 원인, 재가출 기간, 재가출장소, 도움을 받은 기관,

생활비마련

심층면접 대상 청소년들은 모두 첫 가출 후 집에 돌아온 후, 다시 가출을 반복하게 되는데, < 표 29 >를 보면 이들이 재가출을 하게 되는 원인은 모두 처음 가출시 원인이 되었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다시 가출을 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모의 잦은 부부싸움이나 가정불화 및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한 갈등으로 처음 가출하였던 경우, 가정복귀 후에도 이러한 문제가 계속 남아 있어서 다시 가출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S1,S2,S4,S5,S6,S8,S9,S11,S12). 또한 이들은 한번 가출 후, 가출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가출이 습관이 되어 반복적으로 가출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경우도 있었다(S6, S7,S10, S12). 한편, 처음에 가출한 친구의 유혹 때문에 가출을 하게 된 S3의 경우는, 첫 가출 후 가정 복귀 후에, 혼자 돈을 벌어 독립하고 싶어서 다시 반복적으로 가출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들이 다시 가출을 하였을 때 평균적으로 지속된 가출 기간은 대부분 1개월 정도이거나 1개월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를 보면, S2, S9, S10, S11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번 가출하면 가출기간이 1개월내지 1개월 이상 지속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은 재가출 기간 동안 주로 친구와 자취를 하거나 (S1, S10), 주유소나 식당과 같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일터에서 지내거나(S3, S8), 혹은 여관에 장기투숙자로 지내거나(S6, S7, S12), 친구 집에서 지냈다(S2, S4, S5, S9, S11)고 진술하였다.

〈표 29〉 심층면접청소년들의 재가출이유, 재가출지속기간, 재가출장소

피면접자	재가출이유	평균 재가출 지속기간	재가출 장소
S1	가정불화, 부와갈등	한달정도	친구와 자취
S2	가정불화	일주일정도	친구집
S3	돈을 벌려고	한달정도	주유소,음식점
S4	가정불화	한달정도	친구집,
S5	가정불화	한달정도	친구집
S6	생활이 지겹고, 따분해서, 가정불화 반복	한달이상	여관
S7	그냥 습관적으로 가출	한달정도	여관
S8	팬히 화가 나고 집이 싫어서	한달이상	주유소
S9	가정불화	일주일	친구집
S10	가출한 친구가 유혹	일주일정도	친구자취방
S11	가정불화	하루	친구집
S12	집이 싫고,공부도 싫어서	한달정도	공터,거리,여관

그러나 친구집에서 지낸 경우, 친구집에 부모님이 안계신 경우(S4,S11)도 있었다.

〈표 30〉 재가출시 도움을 받은 곳과 생활비 마련

피면접자	도움을 받은 곳	생활비마련
S1	없다. 관련기관이 있는 줄 몰랐다.	아르바이트(술집)
S2	없다. 관련기관이 있는 줄 몰랐다	친구도움
S3	없다. 관련기관이 있는 줄 몰랐다.	아르바이트(음식점, 채소장사)
S4	없다. 관련기관이 있는 줄 몰랐다	친구, 아르바이트 (음식점, 술집)
S5	상당실, 교회, 친구어머니의 도움을 받음	집에서 돈을 갖고 나옴 친구도움.
S6	경찰서의 도움을 받음	아르바이트(공사장, 파트타임)
S7	없다. 관련기관이 있는 줄 몰랐다	집에서 돈을 갖고 나옴
S8	없다. 관련기관이 있는 줄 몰랐다.	아르바이트(주유소)
S9	없다. 관련기관이 있는 줄 몰랐다	집에서 돈을 갖고 나옴
S10	없다. 관련기관이 있는 줄 몰랐다	집에서 돈을 갖고나옴
S11	없다. 관련기관이 있는 줄 몰랐다	집에서 돈을 갖고나옴
S12	없다. 관련기관이 있는 줄 몰랐다	비행(원조교제)

한편, 이들은 장기적인 재가출이 반복되는 동안에도 대부분 사회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으며, 가출청소년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곳이 우리사회에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은 교회나,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으나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었다(S1, S4, S8, S12)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S5의 경우는 친구어머니의 도움으로 교회에 나가 교회 선생님께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S6의 경우는 경찰관의 도움으로 끼니를 해결하거나 잠자리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이 재가출 기간 동안 사용한 생활비는 주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마련하거나(S1, S3, S4, S6, S8, S12), 혹은 집에서 돈을 갖고 나와 생활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반복하기도 하였는데(S5, S7, S9, S10, S11), 이 들 중에는 술집에서 접대하는 일을 하거나(S1), 원조교제 및 절도와 같은 비행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한 경우(S12)도 있었다.

③ 최종 가정복귀과정 : 시기, 이유, 대학진학이유, 귀가후 자신의 변화

심층면접대상 청소년들이 재 가출을 반복한 후 최종적으로 가정에 복귀하게 된 과정을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 이후에 가정에 최종적으로 복귀하였고(S1,S2,S3,S4,S5,S6,S7,S8, S9, S12) 고등학교 졸업 후 가정에 복귀한 경우(S11)도 한 명 있었다. 이들이 최종적으로 가정에 복귀하게 된 이유는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인생을 위해 가출생활을 청산하거나(S6,S7,S8,S10,S11),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흘리시는 눈물 때문에 어머니가 불쌍하여 가정에 돌아오거나(S3, S12), 자신의 모든 허물을 수용하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려준 엄마에 대한 감동으로 가정에 돌아오게 되었거나(

S1), 친구어머님의 설득으로 종교를 갖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 가정으로 돌아가거나(S5), 장기간의 반복된 가출 생활로 인해 지치고 가출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정상적인 삶에 대한 그리움으로 집에 돌아오게 된 경우 등이 있었다(S2,S4,S9).

〈표 31〉최종 가정복귀 시기 및 가정복귀 이유

피면접자	복귀시기	가정 복귀 이유
S1	고2	엄마가 날 수용해주고, 기도해줌. 엄마 때문에 귀가
S2	고2	가출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S3	고2	나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엄마가 불쌍하고, 나 스스로 이길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S4	고3	가출생활이 너무 힘들고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서
S5	고2	친구어머님의 설득과 종교의 힘
S6	고3	스스로 깨닫고 가출생활청산
S7	고2	스스로 깨닫고 가출생활청산
S8	고2	스스로 깨닫고 가출생활청산
S9	고2	가출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S10	고1	스스로 깨닫고 가출생활청산
S11	고졸	스스로 깨닫고 가출생활청산
S12	고2	부모님이 불쌍해서. 엄마가 눈물로 생활

한편 < 표 32 >를 보면, 이들이 최종적으로 가정복귀 후 공부를 하고 대학진학을 하게 된 이유는 대부분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위해 대학을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S2와 S4만이 부모님이 원했기 때문에 부모를 위해 공부를 다시 시작하여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나머지는 모두 자신의 인생을 위해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그 결과, 대학을 가는 것이 좋

겠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S3는 빈번한 가출로 인해 어렵게 겨우겨우 고등학교를 마치고 나니, 공부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대학을 가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S11의 경우는 그 동안 가정이 복잡하여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 일 뿐, 자신은 원래부터 공부를 좋아하고 대학을 가고 싶어 했었다고 진술하였다.

〈표 32〉심층면접 청소년들이 대학을 진학한 이유

피면접자	대학진학이유
S1	내 인생을 위해서
S2	부모님이 원해서
S3	고등학교도 졸업하기도 힘들었는데, 무사히 졸업하고 나니까 공부에 욕심이 생김
S4	부모님이 원해서
S5	내 인생을 위하여
S6	내 인생을 위하여
S7	내 인생을 위하여
S8	내 인생을 위하여
S9	공부가 하고 싶어서
S10	내 인생을 위하여
S11	가출 전부터 대학을 갈 생각을 했음. 공부를 싫어한 것은 아님
S12	내 인생을 위해서

또한 최종 가정복귀 후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피면접자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S1 :(부모의 이혼으로 가출하였으며, 가출 전엔 아빠와 함께 생활) 가출하면 아버지가 나를 찾아 수없이 때렸으나 돌아가지 않았다. 엄마는 늘 나를 위해 기도하고 기다려주셨다.

엄마의 기도로 나는 엄마결으로 돌아갔으며, 엄마와 함께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다. 엄마는 나를 대안학교로 보내셨다.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 참회와 눈물로 회개하였으며, 나를 더 이상 버리지 않겠다고 결심하였다. 나는 지금 내 자신을 무척 사랑하며, 참되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대학생이나 됐으면서 아무 노력 없이 놀기만 하고 철없이 사는 친구(동급생 들)들을 보면, 저렇게 살면 안되는데 걱정도 된다.

S2 : ...아직까지 우리가정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가능하면 가정 생활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지금도 그렇다. 내가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가능하면 밝게 지내려고 노력한다.....

S3 :부모님을 불쌍하게 생각한다. (최종적으로 가정에 돌아온)..그 후로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한다. 부모님도 불쌍하지 않은가?

S4 : ...아직까지 가족의 문제가 남아있다. 개선된 것은 없다. 다만 (가족) 모두가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는다. 포기한 것 같다. 나도 그렇다. 될 수 있으면 부모님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

S5 :부모님이 별거하고 계신다(아직까지 가족문제는 해결되지 않음). 나는 (어쩔 수 없이)아빠와 동생들과 지낸다..... 가족에 대해(특히 동생들에게)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가출은 도피하는 것이다. 동생을 걱정하고 돌보게 되었으며,

경제적으로 독립하려고 애를 쓴다. 늘 일거리를 찾았고, 지금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에 다닌다.....

S6 :집에 돌아온 후 내 인생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 동안 내가 너무 엉망으로 살았다는 생각에 속상하고 화가 난다. 그러나 후회하지는 않는다. 가족이 서로 원만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별로 개의치 않는다. 앞으로는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생활만 하고 싶다.....

S7 :이제 남에게 얹매이고 싶지 않다 나는 나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고 싶지 않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

S8 :부모님이 불쌍하다. 집에 돌아온 후 부모님을 불쌍하게 바라보게 되었다. 아빠 엄마 모두 불쌍하다. 그 분들은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살겠는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분들 탓이 아니다.

S9 : ...이제 정말 제대로 살고 싶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S10: ...부모님이 불쌍하다. 그 분들 각자의 입장을 이해한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가 책임져야한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

S11:....가족생활이 아직도 복잡하다. 그러나 부모님을 이해한다. 이제 원망하지 않는다. 내 인생은 내 스스로 책임지려한다. 그래서 대학에도 진학했다. 나는 원래 목표가 있는 사람이

다. 그렇게 할거다.....

S12:엄마를 불쌍하게 생각한다. 나 때문에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셨다. 어머니께 죄송하고 다시는 눈물을 흘리시지 않게 하려고 노력한다. 많이 성실했고, 책임감도 생겼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피면접자들은 고등학교 이후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의 인생을 위해 어떻게 처신해야하는지를 판단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가출생활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피면접자들의 이러한 변화는 부모님을 부모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고의 성숙함을 동반하게 하고, 부모와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는 자아분화가 일어나게 하여, 아버지와 어머니간의 갈등이나 가정의 심리적 문제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독립된 개체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다.

④ 가출청소년지도를 위한 대처방안

가출청소년 지도를 위한 대처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피면접자들에게 이들이 가출한 동안 도움이 되었던 것과 가장 힘들었던 점을 물어본 결과, 이들은 <표 33>과 같은 진술을 하였다. <표 33>을 보면, 이들이 가출한 동안 그들에게 도움이 된 것은 친구나 친구의 부모님이었고(S3, S5, S8, S9, S12), 특별히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 것이 없었다고 진술한 경우도 많이 있었다(S4,S6,S7,S10,S11). S1의 경우는 가출하는 동안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언제든지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오라고 말해준 것이 큰 힘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S1은 아버지의 경우, 때번 찾아와서 때

리고 자신을 끌고 집에 갔으나, 다시 뛰쳐나오기를 반복하였으며, 결국 매가 두려워서 집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경우 단 한번도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야단을 치신 적이 없으며 단지 자신의 건강을 염려해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S1은 어머니의 딸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과 기다림이 자신을 돌아오게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다. S5의 경우도 가정불화로 인해 집을 뛰쳐나왔으나 친구 집에 머물면서 친구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이 큰 힘이 되어 자신을 잘못되지 않게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친구어머니는 자신이 다른 곳으로 가려하면, 가지 못하게 하시고, 편한한 마음으로 친구집에 머물도록 배려해주셨다고 하였다. 그는 친구어머니의 도움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교회의 상담선생님께 상담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두 사례이외의 경우엔, 함께 가출하고 있는 친구와 마음을 서로 의지하거나(S3, S8, S12), 아니면 친구에게서 위로를 받을 뿐(S2, S9), 그 어느 것으로 부터도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가출시 가장 도움이 된 것과 힘들었던 점

피면접자	가출시 가장 도움이 된 것	가출시 가장 힘들었던 점
S1	모의 기다림	주거장소마련
S2	친구	생활비마련
S3	친구	집에 대한 그리움
S4	없다	주거장소마련
S5	친구부모님	건강유지
S6	없다	없다
S7	없다	생활비마련
S8	친구	생활비마련
S9	친구	주거장소마련
S10	없다	집에 대한 그리움
S11	없다	생활비마련
S12	친구	집에 대한 그리움

또한 이들 중 몇몇은 가출하는 동안 주거할 장소를 찾는 것이 가장 힘들었으며(S1, S4, S9), 일부는 생활비 마련이 힘들었다고(S2, S7, S8, S11) 진술하였다 반면에 가정불화에도 불구하고 집이 그리웠으며 집에 대한 그리움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진술한 사람도 있었다(S3, S10, S12). 그러나 일자리가 많아 돈을 벌기 쉬워서, 가출하는 동안 지내는데 특별히 견디기 힘든 것은 없었다고 진술한 사람도 있었다(S6).

〈표 34〉 가출청소년에게 위험한 요소, 필요한 것, 지도대책

피면접자	가출청소년에게 가장 위험한 요소	가출청소년에게 필요한 것	가출청소년지도를 위한 대책
S1	손쉬운 아르바이트	숙식제공 보호시설	부모교육(자질, 대화, 이해)
S2	비행집단의 유혹	24시간 상담시설	부모교육(자질, 자녀대화,이해)
S3	비행집단의 유혹과 손쉬운 아르바이트	건전한 일터	야간통행제한조치
S4	손쉬운 아르바이트	숙식제공 보호시설	부모자격교육
S5	손쉬운 아르바이트	24시간 상담시설	부모상담제도 가정불화치료제도
S6	손쉬운 아르바이트	24시간 상담시설	부모상담제도
S7	비행집단유혹	숙식제공 보호시설	지속적인 가출청소년상담
S8	손쉬운 아르바이트	숙식제공 보호시설	부모교육,부모상담
S9	비행집단유혹	건전한 일터	부모교육(자질, 등)
S10	24시간 통행	보호시설	야간통행제한조치
S11	PC방	건전한 일터	부모상담제도
S12	가출청소년들의 집 단생활	숙식제공 보호시설	부모교육,가정화목을 위한 교육

한편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가출청소년들에게 가장 위험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피면접자들은 불건전하고 손쉬운 아르바이트자리가 많은 것이 가장 문제라고 진술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S1, S3, S4, S5, S6, S8). 그 외에 가출청소년집단이나 오도바이 폭주족, 폭력조직, 원조교제 집단 및 앵벌이 집단 등 비행집단이 가출청소년들을 유혹하는 것이 문제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S2, S3, S7, S12), 불건전한 PC방 운영이나(S11), 청소년들이 밤새도록 거리를 다닐 수 있는 사회적 여건도 가출청소년들이 일탈행동을 하게 만드는 위험한 요소라고 지적하였다(S10).

또한 가출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숙식제공 보호시설(S1, S4, S7, S8, S10, S12)과 24시간 상담시설(S2, S5, S6) 및 건전한 일터(S3, S9, S11)가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들은 가출이 대부분 밤에 발생하기 때문에, 혹은 가출청소년들은 밤에 주로 방황하게 되고 이들을 유혹하는 대상도 밤에 많기 때문에, 밤에 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장소와 도우미(상담원, 사회사업가 등 인적자원)들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은 특히 청소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주유소나 편의점 및 유흥시설(제도적으로는 불법이지만 가출청소년들의 일터로 성행하고 있음)이 현재 매우 불건전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전한 일터가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가출기간동안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피면접자들은 청소년일터가 매우 불건전한 내용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이나 근로 조건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가출청소년지도를 위해 우리 사회에서 마련해야 할 대

처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피면접자들은 대부분 부모와 관련된 방안을 가장 중요하고도 필요한 대책으로 진술하였다. <표 34>를 보면, 피면접자들은 부모가 부모로서의 자질을 갖춘 후에 부모가 되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부모자질을 쌓게 하는 부모교육이 전반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심지어 S4의 경우는 국가가 부모자격제도를 실시하여 부모자격증을 가진 자만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S5는 가정 '가정불화치료제도'를 만들어서 가정이 원만하지 못한 가정은 의무적으로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고 진술하였으며, S12도 가정화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가출청소년들을 지도할 때 반드시 부모상담을 병행할 수 있도록 '부모상담 제도'를 만들어서(S5, S6, S11), 부모가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모두 가출청소년의 문제가 가정불화 특히 부모님의 적절하지 못한 부모역할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부모가 자질을 높이고 부모역할을 제대로 하면 이 문제는 많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외에 S3와 S10은 청소년들에게 24시간 통행을 허용하지 말고 야간에는 통행을 제한하는 '야간 통행 제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으며, S7은 필요한때에 언제 어디서나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24시간 상담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3. 가출청소년전문가에 대한 심층면접결과

1) 가출원인과 가출경험에 대하여

(1) 첫가출에 대하여

가출청소년들이 처음 가출을 할 때 작용하는 요인과 제반현상들을, 가출원인, 가출지속기간 가출기간동안의 체험, 가정복지비용, 가정복지청소년의 특징으로 나누어 질문한 결과, 피면접자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① 처음 가출을 하게 되는 원인

청소년들이 처음 가출을 할 때의 주된 가출원인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C1: 독자나 늦둥이로 태어난 경우, 가정 내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자라다가 성장 후 가정 밖에서 푸대접을 받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가정 내에서 해소되지 못할 때, 가출충동을 느끼고 실행에 옮긴다. 즉 가정 내에서도 나를 못 알아준다는 불만이 쌓이게 되면 가출을 한다. 한편, 가정불화가 청소년들이 처음 가출을 할 때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C2: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나의 사례의 경우, 가정 혹은 학교에서 좌절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였을 때 가출을 하였다. 또한 그냥 친구들의 권유에 의해

가출을 하기도 한다.

C3: 가정이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경우나, 혹은 그냥 가출친구들을 따라서 가출을 한다.

C4: 학교부적응아들 중 가출을 충동하는 유인자극이 있을 때 가출을 한다. 즉, 친구들이 가출을 권유하거나, 가정의 기능이 불안정하여 가정 내 생활에서 만족을 얻지 못할 때 가출을 하게 된다.

C5: 대체로 부모 간 갈등이 심하여 가정불화가 잦거나,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가출을 한다. 이러한 상태에 놓여있는 청소년에게 가출을 한 친구들이 가출을 권유하면 쉽게 가출을 한다.

C6: 학교부적응이 가출의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러나 이 경우, 가정 내에서 부모와의 갈등이 심하거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움이 잦은 경우가 많다. 즉, 이러한 환경에서 생활할 때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면, 가출충동을 느끼고 친구들이 가출을 지지하면 가출을 해버린다.

C7: 가정불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부부간 갈등이 잦거나 부모자녀가 갈등이 크거나... 또한 학교 부적응이나 교우관계도 가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

C8: 가족문제가 가장 크다. 결손가정이나 부모가 제기능

을 하지 못하는 가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주로 가출을 한다.

C9: 친구문제와 가족 문제로 나눌 수 있다. 가출한 친구가 가출을 권유하거나 가족 내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고 부모와 자녀가 갈등이 많아 가정이 원만하지 못할 때 가출을 하게 된다.

C10: 다양하다. 가족 내, 학교내 문제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가족 내 원인은 가정불화를 들 수 있다. 아버지가 주사가 심하거나 부부간의 마찰이 잦거나 부모의 폭력이 학대수준 일 때 자녀들은 가출을 한다. 또한 청소년기의 첫 가출은 호기심에서 그냥하기도 한다. 친구들이 권유할 때 더욱 쉽게 할 수 있다. 학교생활이 재미없거나, 학업성취에 실패하거나, 인터넷 게임에 빠지거나, 등등 그 이유는 다양하다.

이상의 진술을 종합하면 청소년들이 처음 가출을 하게 되는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가정이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정불화나 부모와의 갈등이 심할 경우, 학교부적응 혹은 친구의 권유가 있게 되면 가출을 쉽게 실행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② 첫가출에서의 가출지속기간

청소년들이 처음 가출을 했을 때의 평균적인 가출지속기간을 질문한 결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C1: 사례마다 조금씩 다르나, 대략 1일-2,3일정도이다.

C2: 처음 가출했을 때는 대개 1일에서 2,3일정도로 가출기간이 짧다. 연령이 어릴수록, 단순가출이나 무작정가출이 많아 가출지속기간이 단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고등학생 이상 정도 되는 청소년이 가출할 때는 처음 가출이라 하여도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찾으면서 가출지속기간이 비교적 길어진다.

C3: 처음 가출할 때는 대개 3일을 넘기지 않고 귀가한다.

C4: 사례마다 다양하며, 가출청소년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 즉, 돈을 많이 가지고 나가면, 가출지속기간이 길어진다. 그러나 보통 첫 가출에서 아무리 길어도 2주를 넘기지는 않았다.

C5: 문제유형에 따라 다른 것 같다. 보통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집을 나간 경우는, 1,2일이면 돌아오고, 친구의 권유에 의해 나간 경우는 1주일 이내로 지속된다. 그러나 부모의 학대로 인해 집을 나간 경우는 첫 가출이라 하여도 장기간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C6: 가출지속기간이 비교적 짧다. 보통 2-5일 정도 지속된다.

C7: 사례마다 다르지만 보통 첫 가출은 대개 1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속된다.

C8: 사례마다 매우 다르다. 부모와의 갈등으로 집을 나간 경우는 부모가 찾으면 비교적 일찍 돌아온다. 그러나 부부간의 갈등이 심하거나 집안에 복잡한 문제가 있거나, 학교생활에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첫가출이라하여도 가출기간이 길어진다. 이 경우 부모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길어지는 것이다.

C9: 보통 처음엔 2-3일이면 돌아온다. 부모가 찾으면 대부분 바로 돌아온다.

C10: 1일에서 3일 정도이다. 원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처음엔 대개 그렇다.

이상의 진술을 종합하면, 청소년들이 처음 가출할 때는 보통 2,3일 내로 집으로 돌아오지만, 고등학생의 청소년이나, 돈을 많이 가지고 나갔거나, 부모의 폭력이나 학대가 심할 경우 등은 가출지속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첫가출일 경우 대개 2 주일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③ 첫가출시 가정 밖에서의 경험

처음 가출을 한 청소년들이 가정 밖에서 경험하는 내용들을 질문한 결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C1: 경험하는 내용이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조금 다르다. 중 3정도의 아이들일 경우, 오토바이를 타고 줄기차게 신나게 논다. 고 1 정도의 아이면, 친구들과 본드를 하거나 술·담배를 한다. 그러나 이들 모두 처

음엔 해방감에 자기가 놀고 싶은 만큼 놀아보려고 한다.

C2: 처음 가출을 하면, 거리를 배회하거나 노래방에 간다. 지하철을 타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다. 처음 가출을 하면 해방감은 느끼지만 막상 무엇을 해야 할 지는 막막해하는 것 같다.

C3: 우리 같은 지방에서는 다른 도시로 가는 경우가 많다. 보통 공원이나 PC방에서 지낸다. 연령이 어릴수록 무작정가출이나 단순가출이 많고, 고등학생 이상이면, 일자리를 찾아다닌다.

C4: 처음 가출한 청소년들의 경험은 대개 비슷하다. 이들은 주로 거리를 배회 한다. 또한 PC방이나 가출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처음 가출을 해서 직업을 구하러 다니는 경우는 드물다.

C5: 친구들과 PC 방에서 지내거나 밤새도록 돌아다닌다. 잠은 주로 PC 방이나 찜질 방에서 해결한다.

C6: 혼자서 자취하는 친구들을 찾아간다. 그리고 이들에게 정보를 얻어 주유소 같은 곳에서 일거리를 찾는다.

C7 : 친구들을 찾아가거나, 거리를 배회한다. 일거리도 찾는다.

C8 : 돈을 벌 궁리를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C9 : 아파트 옥상이나 친구 집에 잘 간다.

C10: 주로 거리를 배회한다. PC방과 노래방에 잘 간다.

이상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청소년들은 처음 가출에서 혼자 자취하는 친구들이나 가출한 친구들을 찾아가서 함께 지내고, 아파트 옥상에 가거나 거리를 배회하며, PC방, 찜질방 등에서 잠 자리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④ 처음 가출 후 가정복귀 비율

청소년들이 처음 가출 후 가정에 돌아오는 경우가 어느 정도 인지를 질문한 결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C1: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지만 청소년들이 처음 가출했을 때는 대개 거의 다 집에 다시 돌아온다.

C2: 거의 90% 이상 돌아온다.

C3: 10명 중 9명은 돌아온다.

C4: 70-80% 이상 돌아온다.

C5: 처음 가출은 대개 시위성 가출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집 근방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부모가 찾으려면 거의 다 돌아간다.

C6: 80-90 % 정도 된다. 거의 다 돌아오는 것 같다.

C7: 거의 대부분 귀가한다.

C8: 90%이상 귀가한다.

C9: 원인에 따라 다르다. 가정외적인 원인에 의한 경우 거의 대부분 돌아온다.

C10: 처음엔 90%이상 돌아온다.

이상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청소년들이 처음 가출을 했을 때는 대개 90% 이상 가정에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보인다.

⑤ 처음 가출 시에도 가정에 돌아오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그 이유

처음 가출을 한 경우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가정에 복귀하지만 가정에 다시 돌아가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질문한 결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C1 : 부모의 학대나 가정의 기능이 손실되는 등 극한 상황에서 가출한 경우, 처음 가출이라 하여도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 집에 돌아가는 청소년은 대개 밖에서의 생활이 더 이상 재미나 해방감을 주지 못하고 그래도 '집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들이다.

C2 : 우발적으로 가출한 경우엔 대개 돌아오지만, 특정한 사건이 있거나 그 정도가 심할 경우엔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처음엔 대개 우발적으로 집을 나가는 경우가 많다.

C3 : 가정이나 부모의 관심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부모가 친구를 통해 연락하고 적극적으로 찾는 경우는 대개 돌아온다. 그러나 자식의 가출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 가정복귀비율은 매우 낮다.

C4 : 가정의 관심과 가족이 얼마나 집에 돌아오기를 호소하는가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가출청소년의 친구관계 등 이들의 지지체계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조금 다르다.

C5 : 가출원인이 해결되었느냐 해결되지 않았느냐의 차이에 있다. 부모에게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 가출을 하고 그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면 대개 돌아오지만, 가정폭력이나 부모학대로 인해 가출을 한 경우는 원인이 쉽게 해결되지 않으므로 돌아오지 않는다.

C6 : 부모가 적극적으로 찾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차이가 있다. 부모가 적극적으로 찾는 경우엔 교우관계를 찾아 나서고, 상담실에 도움을 요청한다.

C7 : 가출원인이 가족갈등에 있을 때에는 대개 돌아가지 않는다. 그리고 부모가 찾지 않는 경우엔, 계속 밖으로 돈다.

C8 : 가출원인이 가족문제이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는 돌아가지 않는다. 결손가정이나 가족기능이 없는 경우 집을 떠난 원인이 해결되기 어려우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다.

C9 : 부모님이 찾느냐 찾지 않느냐에 따라 다르다.

C10: 가족문제가 심각할 때 (폭력, 학대, 부부싸움 등) 돌아가지 않는다. 가정폭력은 대부분 해결되기 어렵고, 아이들은 그 이유로 가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려하지 않는다.

이상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처음 가출시 가정에 복귀한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 간에는 부모요인에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집에 돌아오는 청소년의 경우는 부모가 자녀의 가출에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반면, 첫가출이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부모가 자식의 가출에 무관심하거나, 가정폭력 등 가정의 기능이 손실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2) 재가출에 대하여

가출청소년들이 처음 가출을 하고 집에 돌아온 후, 다시 가출을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하여 재가출 비율, 재가출 원인, 재가출 회수, 재가출시 가출지속기간, 재가출시의 원인변화여부, 첫가출 청소년과 재가출경험이 많은 청소년간의 차이, 가출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 등을 질문한 결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① 재가출 비율

처음 가출 후 가정에 복귀한 청소년들이 다시 가출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 물어본 결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C1 : 100% 재발한다. 한번 가출하면 항상 재가출 위험이 있다. conflict가 생기면 다시 가출하고, 재가출은 더 쉽게 이루어진다.

C2 : 나의 사례들의 경우 약 70% 이상 다시 가출하였다.

C3 : 가출원인에 따라 다르다. 가정폭력의 경우 거의 다시 가출한다. 그러나 단순히 호기심이나 친구권유에 의해 처음 가출했던 경우에 집에 돌아온 후 다시 가출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C4 : 나의 경우 재가출 비율은 20-30%이다. 이들은 대개 장기가출로 이어진다.

C5 :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거나, 부모에게 새로운 요구사항이 생겼을 때 다시 가출한다. 처음 가출할 때에 비해 재가출할 때는 가출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결정을 쉽게 내린다.

C6 : 약 50%이상 되었다.

C7 : 거의 대부분 재가출을 한다. 특히 가족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다.

C8 : 약 60%정도이다.

C9: 주로 가정불화가 있을 때 재가출을 한다. 약 50-60%된다.

C10: 약 70% 이상 된다. 일단은 대부분 재가출의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한다.

이상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처음 가출한 청소년들이 집에 돌아온 후 다시 가출하게 되는 비율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이며, 첫 가출에 비해 재가출에 대한 결정은 더 쉽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족 내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재가출 발생 비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② 재가출 원인

가정복귀청소년들이 다시 가출을 하게 되는 원인을 물어 본 결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C1 :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안 된 경우이다. 집을 나가도 별 불일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경우는 다시 안나가지만, 집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원인이 계속 집에 남아 있을 경우엔 다시 가출한다. 재가출하는 아이들의 가출 원인을 보면 똑같은 원인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C2 : 가족 내 정서적 지지망이 있는 아이들은 다시 가출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족 내 정서적 지지망이 약한 경우, 가출후의 어려움을 알더라도 가출을 한다. 이들은 가출후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보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출한다.

C3 : 가정폭력과 같이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되면 재가출이 잦다. 또한 처음에 가출원인이 가정에 있기 보다 친구 때문에 가출을 한 경우엔 친구가 다시 가출하면 본인도 다시 가출하고 친구가 아직 집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자신도 다시 가출하는 등, 친구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다시 가출을 하는 경우도 있다.

C4 : 정서적인 지지체계가 약하거나 없을 때와 처음 가출할 때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여전히 답답함을 느끼고 다시 가출한다.

C5 : 재가출원인은 다양하다. 가정적 문제로 부모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고 수용하지 못하거나 개인적으로 자아가 부정적이거나 학업문제로 스트레스가 쌓이는 경우 다시 가출한다.

C6 : 부모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거나 처음 가출 후 교사나 또래의 자신에 대한 태도가 점점 부정적이 되어 학교에 부적응 할 경우 다시 가출한다. 또한 학업 중퇴친구들과 관계가 유지될 때 쉽게 다시 가출한다.

C7 : 재가출하는 아이들의 경우, 가출하는 이유가 첫 가출시의 원인과 거의 다르지 않다. 다만, 가출에서 얻은 경험이 매력적이거나, 그리 힘들지 않았을 경우, 처음 원인이거나 가족내 문제와 상관없이 다시 가출한다.

C8 : 가정불화가 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다.

C9 : 가정불화 때문에 재가출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다시

가출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이 문제가 비교적 적다.

C10. 가출을 충동하는 친구가 있을 때 , 첫 가출 때보다 두
 려움이 줄어든다. 첫 가출 때보다 계획적으로 가출을 한다.

이상의 진술내용을 종합해보면, 처음 가출 후 집에 돌아온 청소년들이 다시 가출을 하게 되는 원인은 가정 내 정서적인 지지
 망이 없거나, 가정폭력 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경우
 및 가출친구가 계속 주변에 있을 때 재 가출하게 되는 주된 원
 인으로 보인다.

③ 평균 재 가출회수

가출청소년들이 평균 어느 정도 재 가출을 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C1 : 재가출 청소년의 가출재발회수는 대개 잦은 편이
 다. 돈이 떨어질 때만 집에 들어온다.

C2 : 나의 사례의 경우는 평균 2-3회 가출한다.

C3 : 첫 가출 후의 경험이 재 가출과 상관의 높다. 재발
 할수록 더 쉽게 가출을 한다. 근본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첫 가출 후 가출의 경험이 집에 있
 는 것 보다 힘들지 않으면 다시 가출한다. 이런 경우
 100% 재 가출한다.

C4 : 보통 2-3회 정도 재 가출한다.

C5 : 사례마다 다르다. 그러나 재 가출을 하는 아이들은 재발회수가 잦은 편이다.

C6 : 보통 2-4회 정도 된다.

C7: 사례마다 다르지만 보통 2-3회 하는 것 같다.

C8: 2회 이상이다.

C9: 사례마다 매우 다르다.

C10: 평균 3회 정도이다.

이상의 진술내용을 종합한 결과 평균적인 재가출 회수는 사례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2-4회인 것으로 보인다.

④ 재 가출회수와 가출지속기간과의 관계

가출청소년들이 재가출회수가 높아질수록 가출지속기간이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C1 : 가출회수가 높아질수록 가출기간도 길어진다. 이들은 집에 돌아가는 것에 대한 걱정을 점점 더 안하게 된다.

C2 : 재발회수가 높을 수록 가출기간이 점점 더 길어진다.

C3 . 가출지속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가출청소년은 점점 더 찾기 어려워진다

C4 : 재발 회수가 많아질수록 가출생활에 더 잘 적응해 나가기 때문에 가출기간도 점점 더 길어진다.

C5 : 재발회수가 많아질수록 하루 이틀에서 1주일로, 그리고 그 다음은 점점 장기화된다.

C6 : 재발회수가 높아질수록 집에서 더 멀고 더 넓은 지역으로 간다. 그래서 점 점 더 가출기간도 장기화된다.

C7: 재발회수가 많아질수록 점점 길어진다.

C8: 재발회수가 많아질수록 점점 길어진다. 장기화되면 찾기 어렵다.

C9:재발회수가 많아질수록 점점 길어진다.

C10:재발회수가 많아질수록 점점 길어진다. 점점 더 계획적이고, 치밀해지기 때문에 가출생활에 적응한다.

이상의 진술내용을 종합해 보면, 가출재발회수가 많아질수록 가출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장기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⑤ 가출이 재발할 때마다 가출 원인은 달라지는가?

가출이 재발할 때마다 가출의 원인이 다른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C1 : 재 가출을 자꾸 하는 아이들의 경우, 가출원인은 매번 똑같다. 이들은 처음 가출할 때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출을 계속 유지한다.

C2 : 재 가출을 자꾸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가족의 기능이 없다는 것이다. 대개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정서적으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의 원인이 점점 심화되고 가출을 점점 더 강화시킨다.

C3 : 달라지지 않는다. 가정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다. 특히 가정불화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자꾸 가출을 하는 것이다.

C4 : 반복적인 재 가출의 원인은 매번 똑같다. 재 가출의 경우 가정의 기능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들은 가정 내 아무런 정서적 유대관계가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재 가출을 한다.

C5 : 장기간 가출하고 있는 친구들과 계속 유대관계를 맺고 있을 때,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다시 가출을 하는 경우도 많다. 부모에게 특별한 불만이 없더라도 친구를 도와야하기 때문에 가출을 다시 하는 것이다.

C6 : 재 가출을 반복적으로 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가정 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한부모이거나 부모님이 안 계셔서 기능적으로도 가정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처음부터 이 문제로 인해 가출을 했고, 돌아온 후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다시 가출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 가출을 하는 아이들의 경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출의 원인도 매번 똑같다.

C7: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처음의 문제가 해결 안 되었을 때 가출이 반복된다.

C8: 사례마다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처음의 문제가 해결 안되었을 때 가출이 반복된다

C9: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처음의 문제가 해결안 되었을 때 가출이 반복 된다. 이 처음의 문제는 대개 가정 불화와 관련이 있다.

C10: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처음의 문제가 해결 안되었을 때 가출이 반복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하거나 부모기능이 없을 때, 가출을 반복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친구가 매우 파워풀한 영향을 미친다.

이상의 진술내용을 종합해보면, 재 가출을 반복적으로 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가출의 원인은 매번 똑같은 것으로 보인다. 즉, 재가출청소년들이 처음 가출할 때의 원인은 대개 가정내 구조적,

기능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었고,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우므로 가출을 다시 반복적으로 하게 만드는 것이다.

⑥ 처음 가출을 하는 청소년과 재 가출 경험이 많은 청소년의 차이점

처음 가출을 할 때의 청소년과 재 가출 경험이 많은 청소년을 비교하여 볼 때 차이가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C1 : 처음엔 가출의 원인이 사례마다 다양하지만 재가출경험이 많은 아이들의 가출원인은 거의 한가지이다. 즉, 가정의 기능에 어려움이 있거나 호기심이나 충동적으로 혹은 친구의 유혹에 의해 처음 가출을 한다면, 재 가출의 경우는 가정에 기능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출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년 자신의 의지에 의해 계획적으로 하게 된다. 즉, 재가출경험이 많은 청소년들은 처음 가출을 한 청소년에 비해, 가정에 기능적 어려움이 공통적으로 있고 가출에 대한 자기의지가 강하다.

C2 : 처음 가출을 한 청소년은 두려움이 많고, 외부의 눈을 의식하며, labeling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그러나 가출경험이 많은 아이들은 두려움이 적고 가출을 한 자기모습에 익숙해져서 외부의 눈을 의식하지도 않는다.

C3 : 처음 가출한 아이들은 가출이 어떤 것인지 상황 파악이 안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대부분 당황해하고 배회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발회수가 높은 가출청소년들은 가출이 어떤 것인지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재 가출을 할 때 현실적·체계적·계획적으로 준비를 한다 즉, 현실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돈이나 물건을 확보하고 자신을 못 찾게 핸드폰번호도 변경하며 아르바이트 자리도 마련한다. 무척 치밀해지며 이 과정에서 비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C4 : 처음 가출을 하는 청소년들은 두려움이 많다. 이들은 비행을 최대한 주저하고 꺼리며 자신을 도와줄 기관을 찾는다. 그러나 재발회수가 높은 청소년들은 가출상태에 잘 적응하여 일자리도 찾고, PC방에서 지내는 것도 편안하게 생각하며, 비행도 자발적으로 저지른다. 또한 이들은 자신을 도와줄 기관을 찾지도 않는다.

C5 : 처음에 아이들은 두려움이 많다. 그러나 가출이 반복될 수록 가출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어지고 장기화된다.

C6 : 재발회수가 높은 청소년들은 충동성이 강하고 미래조망 능력이 취약하며 학교부적응현상이 높다. 또한 MMPI 검사에서 특히 3,4,번이 높게 나온다.

C7: 차이가 있다. 재 가출을 하는 아이들은 대개 충동성이

높거나 학교부적응이 많다. 정신적인 측면에서 많이 다르다.

C8: 정신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다. 재 가출을 많이 한 아이는 성숙되지 않은 어린 자아가 있어서 또래들과 잘 안 어울린다.

C9 : 재 가출을 많이 한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학교와 가정이 분리가 잘 안되는 것 같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잘 적응을 하지 못한다.

C10 : 재 가출을 하는 아이들은 행동이 대담하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적다. 자기 자신에 대한 포기도 많다.

이상의 진술내용을 종합해보면, 청소년들이 처음 가출을 할 때는 두려움도 많고 비행도 주저하며 도와줄 기관을 찾지만, 가출회수가 높아질수록 두려움도 없어지고 가출생활에 대한 적응력도 높아져서 도와줄 기관을 찾지 않으며 비행도 주저 없이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⑦ 가출상태에 있는 청소년이 가정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현재 계속 가출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C1 : 부모의 학대나 가정폭력 등 가정의 기능적 문제가 해결 안 된 경우 , 계속 가출상태를 유지한다. 만약 가정이 안

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또래의 유혹이나 환경적인 측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C2 : 부모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는데 그 원인이 있다. 가정 내 정서적 지지망이 없다는 것이 가출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다.

C3 : 가정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가정불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가정이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못하고 또한 가족 내에서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가출청소년들은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 가족 구성원 중 누구라도 관심을 보여주고 자신을 가족의 한사람으로 중요하게 가치를 인정해 준다면, 아이들은 결국엔 집으로 돌아온다.

C4 : 심리적으로 가출에 잘 적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출청소년끼리 network을 형성하고 있어서 지지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들이 서로 가출상태에 머무르게 하는 큰 힘이 된다.

C5 : 가정의 기능이 부재하여 가족간 유대관계가 없어서이다. 이들의 가정은 가족원끼리 모래알같이 생활한다. 또 부모가 자신이 어울리는 친구들을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려하지 않는다.

C6 : 가정과 학교를 벗어난 해방감에 큰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러한 느낌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C7 : 대개 가족문제가 해결이 안된 경우이다. 집에 돌아가도

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돌아가지 않는다.

C8 : 집에 들어가도 예전과 똑같은 경우 귀가를 원치 않는다.

C9 : 환경의 문제이다. 가족환경이나 학교환경이 아이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청소년들은 귀가하지 않는다.

C10 : 가족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다. 부모기능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상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가출청소년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가출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가장 큰 원인은 가정의 기능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특히 가정 내 정서적 지지망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데에 있다. 이로 인해 가출청소년들은 가출청소년들끼리 지지망을 형성하고 의지하며,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다 편안하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2) 가출청소년의 가정복귀요인과 가정복귀 후 경험

가출경험이 여러 번 있는 청소년이 가정에 복귀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가정복귀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가정복귀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정복귀 후 가정 내에서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지 등) 질문한 결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① 안정된 가정복귀 비율

가출경험이 여러 번 있는 후 가정에 안정되게 복귀하는 비율

이 어느 정도인지를 물어본 결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C1 : 문제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 미만이다.

C2 : 나의 사례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대부분 귀가하여 생활을 하고 있다.

C3 : 10명 중 3-4명이다.

C4 : 20% 미만이다.

C5 : 나의 경우 50% 정도이다.

C6 : 10-20% 정도이다.

C7 : 40% 정도이다.

C8 : 50% 미만이다.

C9: 현실을 깨달은 아이들은 귀가한다. 대략 50% 미만이다.

C10: 지도만 잘한다면(특히 상담) 대개 다 돌아간다.

이상의 진술내용을 종합해보면, 사례마다 다르지만 가출경험이 많은 청소년들이 가정에 안정적으로 복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즉, 가출경험이 많은 청소년들이 가정에 안

정적으로 복귀하는 비율은 비교적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② 안정적으로 가정에 복귀하게 된 이유

가출경험이 여러 번 있는 청소년들이 가정에 안정적으로 복귀하게 된 까닭을 질문한 결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C1 :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아이가 그러한 문제를 견디고 지낼 만큼 성숙해졌을 때이다.

C2 : 상담효과였다고 본다.

C3 : 부모의 노력 때문이다. 이들은 집에 안 들어가려 했는데 엄마가 불쌍해서, 밤마다 자신 때문에 우는 엄마 때문에 돌아온다고 했다. 부모의 노력이 가장 크다고 본다.

C4 : 가정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가정의 기능이 회복되고 부모가 적극적으로 자녀의 가출문제에 대처해서 해결이 되었다. 부모가 변해야 한다.

C5 : 부모의 변화이다. 부모가 자녀를 수용하고 이해해 주니깐 문제가 해결되었다. 또한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정도가 되면, 철이 들어서 집에 완전히 들어간다.

C6 : 가정이 변하고 교사와 좋은 친구들이 지원체계가

되어주니까 문제가 해결되었다.

C7 : 가족문제가 해결될 때이다. 또한 부모가 지속적으로 기다리고 찾을 때 안정된 귀가를 한다.

C8 : 부모상담으로 인해 부모가 변하면 자녀는 돌아간다.

C9 : 본인이 스스로 현실을 깨달아서 사회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를 깨닫거나 부모가 변하면 집으로 돌아간다.

C10: 발달적으로 연령이 증가하면 가정에 돌아온다. 보통 고등학교 2,3학년이면 집으로 들어온다. 그전에는 부모가 변해야 자녀가 돌아온다.

이상의 진술내용을 종합해보면, 가출경험이 여러 번 있는 아동이 가정에 안정되게 복귀하게 되는 원인은 가정의 기능이 회복되었을 때이다. 즉, 부모가 변하고 자녀와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할 때 가출한 자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담을 받거나 교사 혹은 친구들의 지원체제도 가정복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정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았더라도 (혹은 부모가 변하지 않았더라도),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하여 고등학교 2,3학년의 연령이 되면, 가정불화나 가족의 문제를 견디어낼 수 있는 심리적 발달을 하게 되어 가정의 문제를 수용하고 대부분 가정에 돌아오는 것으로 보인다.

③ 가정복귀 후에 경험하게 되는 변화

가출청소년들이 가정에 복귀한 후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가를 질문한 결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C1 : 자신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가 변한 것을 느끼게 되고, 잘못을 했을 때 용서를 구하면 부모가 수용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선 청소년자신이 철이 들고, 보다 성숙해진다. 현실적 적응능력도 높아져서 가정 내 갈등이 있을 때 보다 유연하게 대처한다.

C2 : 부모의 태도가 변한 것을 느낀다. 이전에 자녀의 학업에 대해 관심을 갖던 부모는 학교 공부만이 아닌 자녀의 전반적인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이 부분에서 자녀와 대화가 이루어진다. 특수학교나 학원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취업을 갖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그 가치를 인정해주게 된다. 청소년도 의식이 변화되어 보다 성숙하게 생활한다. 청소년은 학교로 복귀하거나 학원을 통해 교육을 받는다.

C3 : 부모의 관심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이전에 부모의 기능 부재로 인한 갈등이 많이 줄어든다.

C4 : 가족들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가족들의 태도와 부모의 역할에 변화가 있다. 자녀를 보다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부모의 이런 태도변화에 따라 청소년도 변화한다.

C5 : 가출시의 고생했던 일들을 가족에게 잘 얘기하지 않으려한다.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한다. 때때로 부모

들은 자녀가 또 가출할까봐 두려워하여 자녀를 무조건 수용하거나 물질공세를 점점 더 많이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안정적으로 가정복귀가 이루어진 경우, 가족원간에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C6 : 처음엔 청소년과 가족 모두 힘들어한다. 일정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정 내에 지지 체계가 형성되고 안정된 가정복귀가 이루어진다.

C7: 처음엔 장기가출로 인해 가족융화가 어렵다. 또한 사회 생활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어 그것을 배우려고 한다.

C8: 대개 부모는 지나친 관심을 보이고 학교에서는 홀대하는 등 청소년은 양극의 대우를 받으면서 힘들어한다.

C9: 대개 자기생활에 충실하려고 한다. 잃어버린 시간을 아쉬워한다. 또다시 가출하고 싶어도 바깥세상보다는 집이 낫다는 생각을 한다.

C10: 가능한 자기생활에 충실하려고 한다. 그러나 가끔 가출 충동을 다시 느낀다. 부모와 자녀 모두 의식이 변화한다. 청소년개인의 자원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경험도 다 다를 것이고, 실패하는 이유도 다 다를 것이다. 부모는 전에 관심이 없던 자녀의 자원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이상의 진술내용을 종합해보면, 안정적인 가정복귀를 하는 경우, 처음엔 부모와 자녀 모두 서로 힘들어하고 다소 적응해 나갈 시간이 필요하지만 차츰 적응해가면서 서로에 대한 지원체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모의 변화가 두드러지며, 자녀가 이것을 느끼면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도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모들은 자녀가 가출을 하기 이전엔 자녀의 학업에만 관심을 갖던 것을, 자녀의 반복된 재 가출 후 가정에 복귀한 후에는 자녀가 지닌 다양한 자원에 관심을 갖고 이것을 발휘 할 기회를 찾는데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가출청소년지도방안에 대하여

가출청소년을 위한 지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그 동안 가출청소년들을 지도하면서 효과적이었던 방법과 지도 시 어려웠던 점 및 가장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대책 등을 물어본 결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가출 청소년지도에서 효과적이었던 접근 방법

C1 : 부모상담을 먼저 하면 효과적이다. 자녀는 상담동기가 약하므로 부모상담을 통해 부모의 태도를 어느 정도 변화시키면 자녀도 상담동기가 생기는데, 이 때 청소년을 상담하면 매우 효과가 좋다. 어렵지만 부모상담을 먼저 해야 한다. 그러나 부모상담에서 부모의 요구대로 들어주는 것은 좋지 않다. 부모상담은 부모에 대한 변화를 이끄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C2 : 청소년의 개인적 자원을 발견하여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상담원도 청소년을 신뢰하고 기다려주어야 상담에 효과가 있다. Ct가 상담원은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이라고 느끼게되면 마음이 돌아온다.

C3 : 자녀와 부모가 함께 상담을 받아야 효과적이다. 또한 자녀와 부모에게 현실적인 안내를 해주어야 한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위해 아이가 준비해야할 것을 함께 찾아준다. 청소년에겐 가출하더라도 꼭 지켜야할 것(비행을 저지르지 않기, 식사를 거르지 않기, 등)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쉼터, 상담실 , 복지기관 등) 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이 상담에 효과적이다. 청소년에게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게 하려 하거나 가출이 나쁘다고 설득하려 하면 효과가 없다. 초심시절 인간적인 감정에 매달려 청소년들을 설득하려하다가 하나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

C4 : 가출정도에 따라 효과적인 접근방법은 다르다. 첫 가출이나, 재발 초기 가출의 경우, 부모상담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쉼터와 같이 장기적으로 가출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일 경우엔 부모상담이 어려우므로 가족의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상담실에서 부모의 기능이 부재한 가출청소년가족의 기능을 회복시키기란 어려우므로 여러 채널을 통해 방안을 찾아야한다. 그래서 청소년과 양육자와의 관계회복을 통해 접근하면 효

과를 볼 수 있다.

C5 : 중학생의 경우엔 가출원인을 많이 이해해주면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효과가 있다. 상담자가 자신의 편이라고 믿게 되면, 상담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여자 청소년인 경우엔 성문제를 반드시 다룬다. 성문제를 다루어주면, 가출상황에서 처신하는데 도움이 된다.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C6 : 부모상담이 절대적으로 효과적이다. 부모상담을 꼭 해야 한다. 상담자는 가출청소년과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이들은 대부분 학업성적이 저조하므로 학업이외의 진로 상담이나 가야할 방향에 대해 함께 찾아보고 조화롭게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다.

C7 : 부모상담이 매우 효과적이다. 그리고 장기간으로 지속적인 상담을 해야 한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한 동안은 추후상담을 계속해야 한다.

C8 : 부모상담을 했을 때 매우 효과적이다. 가출의 원인 대부분 가정내 문제에 있으므로 반드시 부모상담을 병행해야한다. 그러나 다른 문제로 아이가 가출을 하더라도 부모상담이 병행될 때 효과가 있다.

C9 : 자기성장프로그램과 부모상담을 병행하면 도움이 된다. 아이에게 미래에 대한 자기의 모습을 그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미래에 대한 자기의 모습이 그려지면 행동을 신

중하게 한다.

C10: 대안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청소년 개인의 자원을 발견하여 교육기회를 주면 도움이 된다. 청소년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을 하며 충실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이상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가출청소년들을 지도할 때 부모상담을 함께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로상담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이 지닌 개인적 자원을 발견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가출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이들 가족은 대부분 부모기능이나 가족기능이 매우 훼손되어 있어서 부모상담이 어려운데, 이러한 경우 무엇보다도 가족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 과정에서는 상담실과 사회복지기관 및 지방 행정 자치 기구를 통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② 가출청소년지도에서 가장 어려운 점

가출청소년을 지도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을 질문한 결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C1 : 지역사회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점이
다. 때로는 가출청소년에게 약물치료를 해야 할 때가
있고, 가정에 현실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때가 있는데,
상담실 자체만으로는 그럴 힘이 없다. 약물치료가 필요
할 때면 내가 개인적으로 병원에 부탁하여 연결시키

는데, 많이 힘들다.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인 도움이나 취업문제는 전혀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C2 : 가정폭력이나 부모학대로 인해 가출한 경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출청소년에게 집에 들어가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장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쉼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가출발생지역 근거리 내에 없으며, 이러한 가정의 부모들을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도와주는 제도나 지원체계가 없어서 어렵다.

C3 : 가출청소년문제는 복지적인 접근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지역사회에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어렵다. 가출청소년의 경우, 부모학대나 폭력 때문에 가출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상담을 할 때 매우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며, 상담에 한계를 느낀다. 최소한 이들의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기관이나 시설이 있어야 한다.

C4 : 상담실만으로 가출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들의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지원체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가정의 청소년은 집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쉼터나 상담실의 기능에 한계가 있고 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안타깝다. 특히 이들의 가정을 지원하는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들을 지도할 때 너

무 어렵다.

C5 . 집에 돌아간 청소년이 다시 가출했다고 알려올 때 좌절한다. 또한 야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난감했다. 특히 부모님이 안계시거나 부모님이 계셔도 전혀 부모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이에 대한 대안이 우리사회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답답하고 절망을 느낀다.

C6 : 가출청소년 대부분 상담동기가 낮아서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이다. 상담이 전혀 효과를 보고 있지 않을 때 어려움을 느낀다. 더구나 가출청소년의 현실적인 생활부분 부터 해결해야 할 때, 이에 대한 대책이 제도적으로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좌절한다.

C7: 상담인력과 자원이 부족하여 가출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못 줄 때이다. 그리고 가출청소년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어느 부분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C8: 책임감문제가 대두될 때이다. 어디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로 고민할 때 힘들다. 이것은 물론 가출청소년을 맡게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 혼자서 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면, 이러한 고민은 안 해도 될 것이다.

C9: 결혼가정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지 못할 때 너무 힘들다. 가출청소년들은 대부분 결혼가정이 많은데, 청소년만 데리고 상담을 하는 것은 사실 큰 효과가 없다.

C10: 가족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을 때 힘들다. 가정폭력이 심한 경우, 아이들은 차라리 집을 나오는 것이 더 행복하다. 부모들은 무조건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요구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것이 더 위험할 때도 많다. 그러나 이 경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곳도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부모를 교육시키거나 도와주는 시스템도 없고... 어렵다.

이상의 진술내용을 종합해보면, 가출청소년지도에서 가정의 기능을 회복시켜야할 때,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보인다. 특히 가정폭력이나 부모학대로 인해 가출을 한 경우, 이 들 가출 청소년들의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부모를 치료, 교육시키는 제반 사항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문가들은 자신의 역할에 한계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가출청소년지도를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

가출청소년지도를 위해 가장 시급히 마련되어야할 대책은 무엇인가를 질문한 결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C1 : 부모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제도적으로 부모교육이 동반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교육할 수 있는 제반 여건

을 마련해야한다. 부모의 변화 없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C2 : 가정 학교 사회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다. 또한 장기 가출청소년을 위한 의식주와 교육제공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가정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

C3 : 부모교육이다. 가출청소년부모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가출에 대한 예방과 대처에 대한 부모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출청소년들 발견 시, 모든 부모가 이들에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출청소년들을 일시적·장기적으로 보호하는 시설이 전국에 골고루 있어야 한다.

C4 : 가출청소년에 대한 부모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가출하지 않은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도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지역사회내 관련기관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가출청소년관리전문기관을 두어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들 가정의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5 : 국가가 장기적으로 가출청소년지도를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공동대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한다.

C6 :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공동책임을 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학교교사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 가출청소년들이

학교에 복귀하였을 때 잘 적응하도록 학교차원에서의 지원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출청소년들은 자원이 없는 경우가 많다. 건강한 자아개념을 갖도록 도와주면 반드시 가정에 돌아간다. 그러한 힘을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와 교사이다. 부모와 교사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C7 : 부모교육이다. 가정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부모와 자녀를 함께 교육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C8: 부모교육이다. 부모와 자녀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부모가 없는가정에는 사회사업가나 다른 도움을 주는 사람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관리하고 돌봐주어야 한다.

C9: 예비부모교육 부터 시작해야 한다. 예비부모교육을 의무화하고(대학과정이나 또 다른 사회교육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비행자녀부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들을 위한 특수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C10: 부모교육이다. 아울러 지역사회가 복지적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한다. 장기가출청소년을 위해 안전한 보호시설이 지역사회에 마련되어야 한다.

이상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가출청소년지도를 위해 가장 시급히 마련되어야할 대책은, 부모교육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가출청소년과 그 가족을 위해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마련되어야한다는 것이 가출청소년전문가들의 전반적인 견해이다.

V. 결 론

1. 요약
2. 가정복귀가출청소년들의 귀가요인
3. 가출청소년지도를 위한 대처방안

공 백

V. 결 론

본 연구는 가출청소년들이 가출을 하고 가정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어떤 요인이 작용하고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과거 가출경험이 있으나 현재 가정에 복귀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과 가출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연구하는 가출청소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하여 질적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는 네가지 측면에서 수집되었는데, 하나는 청소년이 처음 가출을 하여 집에 돌아오는 과정에서의 작용요인과 제반현상을, 또 하나는 재가출을 하는 과정에서의 작용요인과 제반현상을, 세 번째는 최종적으로 가정에 복귀하는 과정에서의 작용요인과 제반현상을, 마지막으로 가출청소년 지도시 효과적인 대처방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먼저 570명의 일반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가출경험실태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가출경험 실태를 분석하고 심층면접 대상자를 선발하였다. 이 결과 심층면접에 응한 가정복귀가출청소년은 12명이었다. 또한 현장에서 가출청소년들을 지도하고 가출청소년들을 연구하는 가출청소년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면접에 응한 가출청소년전문가는 10명이었다. 예비조사와 심층면접에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요약

1) 첫 가출에서의 원인과 경험내용

본 연구결과 예비조사대상 대학생들의 약 11%(65명, N=570(100%))는 가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7%와 남학생의 26%가 대학교 입학이전에 1회 이상의 가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처음 가출을 하게 되는 원인은 가정이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가정불화나 부모와의 갈등이 심할 경우에 청소년이 학교부적응상태에 놓여 있거나 친구의 권유가 있게 되면, 가출을 쉽게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처음 가출에서는 대부분 가출이 어떤 것인지 현실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나가기 때문에 거리를 배회하거나 방황하고, 혼자 자취하는 친구를 찾아가거나 PC방에서 지내다가 집에 돌아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처음 가출은 대개 1주일 이내로 짧게 지속되며, 약 90%정도가 집에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처음에 가출한 모든 가출청소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며, 가정폭력이나 부모학대로 인해 집을 나갔거나 자녀가 가출하여도 부모가 찾지 않는 역기능적인 가정의 청소년들인 경우는 첫가출 후 대부분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2) 재가출에서의 원인과 경험내용

처음 가출 후 가정에 복귀한 청소년들 중 대부분은 다시 가출을 하며, 재 가출을 할 때는 첫 가출에 비해 보다 쉽게 결정을

내리고 보다 계획적으로 가출을 준비한다. 이들이 재 가출을 하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가정 내 정서적인 지지망이 없거나 가정 폭력과 같은 가정 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와 같은 역기능적인 가정일 경우, 자녀의 가출이 반복적으로 되풀이된다. 즉, 가정이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못하여 가족원끼리 갈등이 많고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적절한 부모 역할과 잦은 부부싸움이 청소년들을 집밖으로 내다 모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재 가출의 경우 대개 첫 가출 때의 원인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원인은 가족내에 계속 유지되면서 청소년들이 재 가출을 반복적으로 하게 만들었다.

또한 재 가출을 하는 회수는 사례마다 다르나, 평균 2-4회인 것으로 나타났고, 재가출회수가 많아질수록 가출지속기간도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가출할 때마다 가출의 원인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재 가출을 여러 번 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처음 해결되지 않았던 원인들이 반복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이 처음 가출을 할 때는 두려움도 많고 비행을 저지르는 것도 주저하며 자신을 도와줄 기관을 찾지만, 재 가출을 여러 번 하게 되면, 가출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고 가출생활에 대한 적응력도 높아져서 자신을 도와줄 지역사회기관도 찾지 않으며 비행도 의도적으로 주저 없이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기적으로 계속 가출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이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가정의 기능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가정내 정서적 지지망이 없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가출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은 가출청소년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음식점, 술집, 주유소 등과 같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아서 가출하는 동안 생활비 마련이 비교적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일터들은 청소년들에게 불건전하게 운영되었고, 청소년들의 인권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출청소년들은 처음 가출할 때나 재가출이 반복되는 동안에도 청소년상담실이나 사회복지관 및 쉼터 나 종교단체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했으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이러한 기관이 지역사회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청소년들은 가출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들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으며, 가출청소년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도움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정복귀요인과 가정복귀 후의 변화

본 연구결과 가출청소년들이 안정되게 가정에 복귀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가정의 기능이 회복되었을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내 갈등요소가 사라지고 부모가 성숙하게 변하며 자녀를 수용해줄 때, 자녀는 가정에 안정된 복귀를 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가출경험이 여러 번 있는 청소년이 가정에 안정적으로 복귀하기란 어려워, 이러한 청소년들이 가정에 복귀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그러나 부모가 변하고 자녀와 정서적 유대관계가 형성되면, 자녀의 가정복귀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정에 돌아오면 처음엔 자녀와 부모 모두 적응기간이 필요하며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원 모두 적응해나가게 되고, 서로에 대한 지원체계를 형성해 나가게 된다. 가정에 돌아온 청소년들은 부모의 변화를 느끼면서 자신도 변화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의 기능이 회복되지 않았더라도 가출청소년들이 현재의 가정상황을 견디어 낼 수 있는 연령이 되면 부모의 변화

와 상관없이 가정에 복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와 심층면접 결과 고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가정의 기능이 여전히 역기능적이라 하여도 그러한 상황을 수용하고 견디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심층면접대상청소년들은 고등학교 2, 3 학년 때 가정에 최종적으로 복귀하였는데, 이들의 가출 원인이었던 가정불화나 부모역할 부재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가정에 복귀하여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이 연령에 이르러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의 인생을 위해 스스로 가출생활을 청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자신의 부모들을 부모 각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은 가정복귀 후,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가 책임져야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자신의 인생을 위해 공부를 다시하게 되었고, 대학도 진학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심층면접 대상자들의 심리검사 결과, 이들은 대부분 성격상에 문제가 없었으나, MBTI에서 S, F, P 선호경향인 사람이 조금 더 많이 있었고, Egogram에서는 NP와 FC가 우위인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성향이 있으면서 동시에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도 잘되어 정이 많고 남에 대한 배려도 잘하는 성향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러한 이들의 성격이 가출을 반복하게 하기도 하였으나, 최종 복귀과정에서 부모를 부모입장에서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면접과정에서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대부분 매우 밝게 보였고, 유머가 있었으며, 면접자에게 선한 인상을 심어 주었는데, 심리검사결과 나타난 이들의 심리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4) 가출청소년지도를 위한 대처방안

예비조사와 심층면접 결과 가출청소년에 대한 지도를 할 때는 부모교육이나 부모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대부분 부모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적인 부모교육 뿐 만 아니라 부모의 자질을 심어주는 예방적 부모교육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일부는 부모 자격제도를 두어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부모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가출청소년전문가들은 가출청소년들을 지도할 때, 부모상담을 병행하면 효과가 크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모상담이 불가능한 가출청소년의 경우, 가정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것은 다각적인 채널을 통한 전문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출청소년 지도시 가출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집에 돌아가도록 호소하기 보다는, 가출을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비행, 성문제 등)과 가출시 필요한 정보제공(잠자리, 상담소 등)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안내를 해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출청소년들을 지도할 때 상담가나 관련전문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상담과 함께 복지적인 서비스가 동반되어야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제도적으로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인데, 특히 가정폭력이나 부모학대로 인해 가출을 한 경우, 청소년들의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과 부모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치료하고 교육시키거나 가정의 현실적인 문제(경제적인 것 등)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가출청소년지도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구는 가출청소년당사자들도 절실히 원하는 것으로서, 심층면접 대상 청소년들은 숙식제공 보호시

결과 건전한 일터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심층면접 대상 청소년들은 우리사회에서 가출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너무 쉽고 이러한 아르바이트들이 대부분 불건전하게 운영된다는 점을 가출청소년들에게 가장 위험한 요소로 지적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의 통행이 24시간 가능하다는 것도 일탈행동을 증가시키는 위험한 요소라고 지적하였다.

2. 가정복귀가출청소년들의 귀가요인

예비조사결과와 가출경험 대학생 및 가출청소년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결과, 가출청소년들이 최종적으로 가정에 복귀하게 되는 요인은 가출원인과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가출원인에 따른 가정복귀요인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는 원인은 크게 가정 내 원인과 가정 밖의 원인으로 구별될 수 있다. 가정 내 원인은 주로 가정의 심리적·구조적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가정불화, 부부간 갈등, 부모의 별거 및 이혼 등이 주 요인이며, 가정 밖의 원인은 친구의 유혹이나 호기심 및 부모나 교사에 대한 반항이나 학교 부적응 등과 주로 관련이 된다. 본 연구결과, 가정 밖의 원인에 의해 가출을 한 경우, 비교적 일회성 가출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재 가출을 하여도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대부분 가정에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 밖의 원인에 의해 가출을 한 경우엔, 부모가 자녀를 찾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가정

복귀결과는 매우 달라진다. 부모가 자녀를 찾을 경우, 대부분 성공적인 귀가를 하게 된다.

그러나 가출의 원인이 가정불화나 가정 폭력 및 가정기능의 부재에 있을 경우엔, 가정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 대부분의 가출청소년들은 가정에 복귀하지 않으며 설사 귀가한 다하여도 재 가출을 반복하게 된다. 이들은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찾는다 하여도 가정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집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 이들이 가정에 최종적으로 복귀하게 되는 요인은 부모가 변하여 가정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이다. 가정의 기능이 회복되면, 이들의 재 가출 원인은 사라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청소년가출은 그 원인이 가정밖에 있을 때에는 부모가 자녀를 찾느냐 찾지 않느냐에 따라 귀가가 결정되고, 가정 내에 가출원인이 있을 때에는 부모가 변하여 가정의 기능이 회복될 때 귀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2) 가출청소년연령에 따른 가정복귀요인

그러나 본 연구결과 가출청소년의 연령은 이들이 가정에 복귀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 내 복잡한 문제로 인해 가출을 하게 된 경우에도 가출청소년들의 연령은 그들의 귀가요인에 크게 작용하였는데, 가출청소년들은 10대 후반이 되면, 가출원인이 개선되거나 전문적인 개입여부와 상관없이 귀가를 결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청소년들은 고등학교 고학년 연령이 되면, 자신의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책임져야한다는 것을 깨달으며,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사고가 가정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게 하며

부모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모를 가없이 여기고 수용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개인의 이러한 변화는 가정의 열악한 환경에 견디어낼 수 있는 자원이 되어 청소년이 가출생활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만든다. 그러므로 10대 후반이라는 연령은 가출청소년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정복귀를 결심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0대 초반의 경우는 가출원인이 개선되거나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 도움을 받을 때 가정복귀가 이루어진다.

한편, 심층면접 대상 청소년들의 심리검사를 통해 볼 때, 대체로 이들은 선하고 따뜻한 마음과 타인에 대한 동정 및 배려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 이것이 10대 후반에 가정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부모를 이해하며 수용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가출청소년지도를 위한 대처방안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가출청소년지도를 위한 대처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출청소년문제는 반드시 부모요인과 관련하여 다루어야 한다.

가출청소년 문제는 그 원인이 부모요인과 관련이 높다.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부모의 역할이나 부모와의 관계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또한 가출청소년들이 가정에 안정되게 복귀하는 데에도 부모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이것은 가출청소년을 지도할 때

부모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부모는 가정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적절한 양육기술을 지닐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질이 부족한 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이해와 지도방법은 물론 부모자신의 변화와 부부간 갈등을 치유하는 교육을 받게 하고 가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예, 알콜 중독, 가정폭력 및 경제능력 등)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한다.

둘째, 첫 가출을 한 청소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

청소년은 한번 가출하기 시작하면, 가출을 점점 더 쉽게 하게 되고, 가출기간도 늘어나게 된다. 청소년은 처음 가출을 한 경우엔 거의 다 집에 돌아오지만, 재가출을 한 경우엔 집에 돌아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것은 청소년이 가출상황에 익숙해지기 전에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출청소년들이 가출상태에 적응하기 이전인 초기에 적극적인 개입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재가출을 방지하고 가정에 안정되게 정착하여 적응해갈 수 있다.

셋째, 가출청소년에 대한 개입은 가출청소년연령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어야한다.

본 연구결과 고등학생들의 경우(혹은 10대 후반) 중학생에 비해 호기심에 의해 가출을 하는 경우는 드물며, 가정의 기능적 문제에도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린 청소년의 경우, 호기심에 의해 가출을 하거나, 가정의 기능적 결손에 대처하는 능력이 약해 가출을 더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가출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개입은 10대전

반과 후반을 구별하여 이루어져야하고, 특히 10대 전반의 청소년들에게는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어린 청소년들의 경우, 집으로 돌아가도록 훈방하기 보다는 가출생활에서 지켜야 할 것(비행저지르지 않기 등)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안내(쉼터, 일자리, 교육기회 등)를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편, 10대 후반의 경우, 골이 깊은 가정불화나 회복되기 심각한 가정문제가 아니면 가출을 쉽게 하지 않으며, 또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가정복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견디어낼 수 있는 개인내적 자원을 갖게 되며, 부모를 부모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고의 성숙함을 보인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들이 소진되지 않도록 정서적 지지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내적자원이 고갈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과 동시에 이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적절하게 마련하고 건전한 일터를 제공해야한다.

넷째, 가정불화에 의해 첫 가출을 한 10대 초반의 청소년을 주시해야 한다.

위의 첫째 둘째 셋째를 통해서, 가정불화에 의해 가출을 시작한 10대 초반의 청소년들은 장차 가출기간이 장기화되고 재가출회수가 매우 높으며, 가정에 복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누구보다도 길 것이라는 쉽게 예측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발달적으로 사고의 기능과 사회성 및 정서가 성숙되기 이전시기이므로 가출하는 동안 일탈행위에 노출될 가능성도 가장 크다. 그러므로 가출청소년문제를 다룰 때에는 가정불화로 인해 처음 가출을 하게 된 10대 초반의 청소년들의 경우, 특별히 비중을 두고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

이들에게 초점을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가출청소년문제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가출 청소년문제는 통합적인 서비스가 요구된다. 특히 재 가출을 여러 번 경험하는 청소년의 경우, 대부분 가정이 구조적·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복지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부모의 자질을 높여 부모역할을 기능적으로 하게 함은 물론 주거환경에서부터 생활전반에 이르기까지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가능하도록 물리적·기술적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가출청소년지도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고, 이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마련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여섯째, 가출청소년을 위한 24시간 상담과 찾아가는 상담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가출을 경험했던 청소년들은 가출기간동안 상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으나 지역 사회 내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가출 청소년들 지도를 위해 24시간 상담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가출청소년전문가들도 가출청소년들이 주로 발생하는 밤 시간 동안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개선할 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출청소년들의 상담 동기는 매우 낮아서 설사 상담실이 24시간 운영된다 하여도 이들이 자발적으로 상담실을 찾아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가출청소년들이 발견되는 모든 시각과 모든 지역에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24시간 상담실 운영'과 함께 '찾아가는 상담'을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가출청소년들이 모여 있는 곳은 알려져 있으므로, 그 현장에 ‘이동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상담인력과 상담실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일곱째, 청소년들에 대한 야간 통행시간 제한과 일자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가출경험이 있었던 청소년 스스로 우리사회엔 건전하지 못한 일자리가 많고, 청소년들이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이 가출을 부추기는 증가요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한 일터를 마련해주고 유해환경은 규제하며 이와 아울러 청소년들의 통행가능시간을 야간에는 일부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가출청소년집단이나 비행집단은 밤에 주로 활동하며, 밤 시간 동안에 비행에 대한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통행시간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가출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덟째, 가출청소년지도를 위한 법령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방안들은 모두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가능한 일들이다. 현재 가출청소년에 대한 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 49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출청소년들을 일시보호하고 선도하는 청소년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일 뿐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법적으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지도는 보호시설제공에서부터 상담 과 진로지도 및 가정기능의 회복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므로, 반드시 관련 법령의 보강 및 신설을 통해 제도적 뒷

받침이 이루어져야한다. 위에서 말한 7가지의 대처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담당행정기구 조직, 가출청소년지도범위규정, 시설 및 인적자원 확보, 예산 집행 등, 관련 내용에 대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기 위하여 기존의 법령을 보강하고 새로운 법령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로청소년쉼터(1999). 청소년쉼터 운영 연구보고서.
-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2003. 7. 현재). 홈페이지 자료실.
- 권윤아(1997). 실업계 여고생의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중달(2002). 가출청소년의 사회지지망에 관한 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2002). 가출청소년의 성공적 귀가와 재가출에 관한 연구. 카톨릭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양희(1995). 가출아동의 신체적 학대경험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지(1994). 가출청소년의 삶과 문화에 대한 생애사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은(2002).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의 서비스개선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향초 (1998) 가출청소년의 이해. 서울:학지사.
- 김혜래(1985). 청소년의 가출행동에 있어서 스트레스의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동석, 이용교 역.(1991). **가출청소년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 나 철(1992). 가출청소년의 가족문제 및 선도방향. 한국청소년연구원, 청소년가출의 예방과 대처방안, 41-54.
- 남기화(1998). 가출청소년관계망을 형성하는 체제들 간의 청소년쉼터인식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영옥(1998). 가족의 심리역동적 환경이 청소년의 생존전략적

가출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2001). 청소년의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계선 특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8권 제2호, 143-172. 한국청소년학회.

대전 청소년 쉼터(2003). 홈페이지 자료실.

도수경(1991). 가출경험소녀와 비가출소녀간의 가족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용옥(2000). 가출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에 대한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화관광부(2002). 청소년기본법령집.

문화관광부(2003). 2002 청소년백서.

민가영(2001). 소녀들의 가출문화에 관한 현장기술지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2권 제1호, 47-78. 한국청소년개발원.

방은령(2003 a). 청소년상담실에서의 가출청소년지도 - 현실적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기술연구 -. 교육문제연구, 제19집, 87-109.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_____(2003 b). 사회복지관의 아동·청소년복지사업 내용 및 전문인력에 대한 조사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제5권 제2호, 33-46. 한국청소년복지학회.

방은령, 조성연(2002).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실태 조사연구 1-이메일과 채팅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제4권 제2호, 101-123. 한국청소년복지학회.

방은령 외. (1998). 현대청소년복지론. 서울 : 양서원.

유승권(2002).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사업서비스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한규(2002). 가출청소년지도를 위한 집단치료놀이프로그램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정(2000). 청소년의 상습적인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동덕여자대학교 여성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1998).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 9권 12호, 115-138. 한국청소년개발원 .
- 이정자(1973). 청소년가출의 요인분석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중근(1992). 한국가정환경과 청소년가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심(2001). 가출여자청소년들의 특성과 이들을 위한 서비스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막례(2000). 청소년의 가출요인과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수한(1993). 상담사례분석을 통한 청소년가출의 원인과 대책.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운숙(2001). 가출청소년의 회귀과정.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표갑수(1996). 아동청소년복지론. 청주대학교 출판부.
- 푸른여성정보 센터(2003. 7.) 홈페이지 자료실.
- 한국사회복지관협의회(2003) 홈페이지 자료실.
- 한국청소년상담원(2001). 청소년가출경험조사연구. 구본용(2003). 가출청소년지도대책. 가출청소년지원방향모색, 24-44. 재인용.
- 한국청소년상담원(2003). 가출청소년지원방향모색. 제3회 청소년상담관계공무원연수 자료집.

-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03. 7) 홈페이지 자료실.
- 한상철(1999). 가출청소년의 위험행동과 대처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행동연구, 4, 113-134. 경산대학교 청소년문제연구소.
- _____(2000). 가출청소년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우울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제11권 , 2호, 29-54.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상철 외(2003). 청소년문제행동. 서울: 학지사.
- 한은신(2000). 가출청소년의 재가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현온강, 이홍숙(2001). 청소년쉼터에서의 가출청소년과 쉼터종사자들의 생활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8권 1호. 163-197. 한국청소년학회.
- 홍봉선, 남미애(2000). 청소년복지론. 서울:양서원.
- Ek, C.A, & Steelman, L.A.(1988). Becoming a runaway : From the accounts of youthful runners. *Youth Society*, 19, 334-358.
- Greeno, J. M. & Ringwalt, C. L.(1996). Youth and familial substance use's association with suicide attempts among runaway and homeless youth. *Substance Use and Misuse* , 31, 1041-1058.
- Sharlin, S.A., & Mor-Barak, M.(1992). Runaway girls in distress: Motivation, background, and personality. *Adolescence*, 27(106), 387-405.
- Thoits, P. A. (1995).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processes: Where are we ? What next? *Journal of Health Social Behavior, Extra Issue*, 53-79.

Unger, J.B., Kipke, M.D., Simon, T.R. , Johnson , C. J. , Montgomery, S.B., & Iverson, E.(1998). Stress, coping, and social support among homeless youth.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3, 134-157.

Whitbeck, L.B., Hoyt, D.R., & Ackley, K.A.(1997). Abusive family background an later victimization among homeless and runaway adolescents . *Journal of Research Adolescent*, 7, 375-392.

Yoder, K.A., Hoyt, D.R., & Whitbeck, L.B.(1998). Suicidal behavior among homeless and runaway adolescents .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7, 753-771.

공 백

부 록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가설

공 백

< 부록 > 예비조사질문지 (A형)

안녕하세요?

본 질문지는 학생여러분들의 가출에 대한 인식과 가출경험에 대하여 묻는 질문지이며, 본 질문에는 정답과 오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솔직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신 응답내용은 연구 자료로만 사용될 것이며, 연구이외의 자료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가 가출청소년들을 도와주는데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서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방은령 드림 .

응답자 인적사항 (V 표해주세요)

지역	1.서울() 2. 인천() 3.경기() 4.대전() 5. 충남() 6. 충북() 7.강원() 8. 전북() 9.전남() 10.경북() 11.경남() 12.제주()
학교	1. 대학교 () 2. 고등학교 ()
성별	1. 여 () 2. 남 ()
연령	만 ()세
종교	1.기독교() 2. 불교() 3.천주교() 4.무교() 5. 기타
생존 동기 가족	1. 부모() 2. 부() 3. 모() 4. 부모 모두 안계심() 5. 형(오빠)() 6. 언니(누나)() 7. 동생()

**** 귀하는 가출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 ____ ① 있다. (A 문항으로 가세요.)
- ____ ② 가출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 (B 문항으로 가세요)
- ____ ③ 가출충동은 느낀 적이 있으나, 실행한 적은 없다. (C 문항으로 가세요.)

< A 문항 >

1. 처음 가출을 한 시기는 언제 입니까? ()
①중학교 이전 ②중학교 ③고등학교 ④고등학교 졸업후
2. 처음 가출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가정불화 ② 친구유혹 ③ 돈을 벌려고 ④ 공부가 싫어서
⑤ 친구를 사귀지 못함 ⑥인터넷을 통해(채팅, 혹은 가출사이트) ⑦ 기타
3. 첫 가출 후 얼마 만에 집에 다시 돌아왔나요? ()
① 하루 ② 2-3일 ③ 일주일 내 ④ 일주일 이상
4. 첫가출 동안 어디서 지냈나요? ()
① 거리배회 ② PC방 ③ 친구집 ④ 여관 ⑤ 기타()
5. 첫가출 후 집에 돌아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부모님이 찾아서 ② 돈이 떨어져서 ③ 가출생활이 무서워서
④ 있을 곳이 없어서 ⑤ 기타 (구체적으로)
6. 재가출을 한 적이 있나요? ()
① 있다 ② 없다(이 경우, 11번으로 가세요)
7. 재가출을 했다면, 몇 번했나요? ()
① 2회 ② 3 회- 6회 ③ 7회 -10 회 ④ 수도 없이 많이
8. 재가출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 ① 가정불화 ② 친구유혹 ③ 돈을 벌려고 ④ 공부가 싫어서
⑤ 그냥 습관이 되어서 ⑥ 기타 ()
9. 재가출을 한 경우, 가출기간은 평균 어느 정도 지속되었나요?()
① 하루 ② 일주일 이내 ③ 한달 이내 ④ 한달 이상
10. 재가출을 한 경우 어디에서 지냈나요? ()
① 공터나 거리 ② PC 방 ③ 주유소 등 일터 ④ 친구집 ⑤ 쉼터
⑥ 기타 ()
11. 가출한 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했나요? ()
① 집에서 충분히 갖고 나옴 ② 아르바이트를 해서 ③친구의 도움
④ 비행을 저지름 ⑤ 쉼터 등 공공기관의 도움 ⑥ 기타()
12. 재가출 하는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
① 생활비마련 ② 주거장소 마련 ③ 비행집단과의 만남 ④ 집에
대한 그리움
⑤ 건강유지 ⑥ 도움을 청할 곳이 없음 ⑦ 기타 ()
13. 가출한 동안 청소년쉼터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나요? ()
① 도움을 받았다. ②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주변에 없었다.
③ 그런 곳이 있는 줄 몰랐다. ④ 찾아갔지만 시설이 부족했다.
⑤ 기타()
14. 가출한 동안 청소년상담실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
① 도움을 받았다. ②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주변에 없었다.
③ 그런 곳이 있는 줄 몰랐다. ④ 찾아갔지만 문이 닫혀 있었다.
15. 가출한 동안 경찰서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
① 도움을 받았다. ②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주변에 없었다.
③ 도움을 받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 ④ 기타()
16. 가출한 동안 교회(성당, 혹은 절)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나요?
()

- ① 도움을 받았다. ②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주변에 없었다.
 ③ 도움을 받을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④ 찾아갔지만 문이 닫혀 있었다.
17. 그 밖에 가출한 동안 도움을 받은 곳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
18. 최종적으로 집에 돌아온 것은 언제인가요? ()
 ① 중학교 ②고1 ③고2 ④고3 ⑤고등학교 졸업 후
19. 최종적으로 집에 돌아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부모님이 찾아서 ② 선생님의 설득 ③ 청소년상담실에서의 상담결과 ④쉽터의 권유 ⑤ 가출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⑥ 부모님이 불쌍해서
 ⑦스스로 깨달아서 가출생활청산 ⑧ 종교의 힘으로
 ⑨ 기타()
20. 집에 돌아온 후 공부(대학진학)를 다시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
 ①부모님이 원해서 ②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③공부가 하고 싶어서 ④기타()
21.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출청소년들에게 가장 위험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비행집단의 유혹 ② 가출청소년들의 집단생활 ③ 손쉬운 아르바이트(술집, 주요소 등) ④ 24시간 통행 ⑤PC방 ⑥인터넷 ⑦기타
22. 가출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숙식을 제공하는 보호시설 ② 24시간 상담시설
 ③ 건전한 일터 ④ 청소년통행제한조치(밤동안) ⑤ 종교 ⑥ 기타

-
23. 청소년가출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24. 가출청소년지도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공 백

2003년 한국청소년개발원 간행물 안내

- 03-R01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I
-청소년 의복문화와 소비-(맹영임 · 구정화)
- 03-R02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II
-청소년 음식문화와 소비-(조혜영 · 김선아)
- 03-R03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에 관한 연구 III
-청소년 소비생활 문제와 대책-(윤철경 · 조아미 ·
백지숙 · 유혜림)
- 03-R04 청소년 생활문화와 소비 -정책제안 요약집-(임지연)
- 03-R05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 실태연구(이종원 · 유승호)
- 03-R06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김정주 · 김용대 · 성기원)
- 03-R07 청소년의 사이버커뮤니티 참여 및 이용실태 연구
(황진구 · 권태희)
- 03-R08 청소년의 시민권 증진 방안 연구(최원기 · 전명기 · 이주연)
- 03-R09 중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보호대책 연구
(전경숙 · 노재봉)
- 03-R10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 폭력 대책 연구
(이민희 · 임영식 · 이진숙)
- 03-R11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길은배 · 문성호)
- 03-R12 청소년 리더십 함양을 위한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
모델 개발(우정자 · 김은경 · 김형주)
- 03-R13 청소년인권센터 운영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김영지 · 이용교 · 김세진)

- 03-R14 청소년 정보소의 실태 조사 연구(김경준·최선희)
- 03-R15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조사개요보고서
(이경상·김진호·오해섭·김희진)
- 03-R16 청소년의 세계시민 자질과 함양방안 연구(김선미·남경희)
- 03-R17 가족복귀 가출청소년들의 귀가요인 분석 및 가출청소년지도 방안 모색(방은령)
- 03-R18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 정책적 함의(문성호)
- 03-R19 지방정부의 청소년예산결정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김영호)
- 03-R20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유형과 문제행동간의 관계:
청소년의 자아통제 및 부모감독의 중재효과(김희화)
- 03-R21 청소년 진로개발을 위한 방향성 탐구(최동선)
- 03-R22 청소년의 사이버일탈의 원인에 관한 경험연구(이성식)
- 03-R23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복지지원 방안(노혁)
- 03-R24 거주지역환경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전신현)
- 03-R25 폭주청소년의 위험행동과 예방에 관한 연구(김문섭)
- 03-R26 자살 사이트의 생성 및 이용, 그리고 운영:
심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사례분석(문성원)
- 03-R27 부모를 위한 청소년지도 가이드(신인순 외)
- 03-R28 한·중·일 청소년 정책비교 연구(이종원)
- 03-R29 한국과 미국 청소년의 컴퓨터 활용과 진로선택 경향 연구(김선미)
- 03-R30 2003전국청소년 자원봉사 주관사업 우수활동사례집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1 2003 대한민국 청소년봉사상 우수활동사례집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2 자원봉사 선진지 연수보고서(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3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매뉴얼(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 03-R34 일본자원봉사 지원센터 활동사례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5 한중정책세미나 자료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6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수립 공청회 자료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7 청소년 삶의 질 향상 세미나 자료집(한국청소년개발원)
- 03-R38 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종합대책 연구(김영한·서정아)
- 03-R39 학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이재분·박효정·현주)
- 03-R40 일탈·범죄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김은경·이동원)
- 03-R41 근로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손유미·김상호·조정아)
- 03-R42 귀국 및 탈북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조한범·이금순·이우영·전효관)
- 03-R43 여자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이춘화·윤옥경)
- 03-R44 서현청소년문화센터 위탁운영 비용산정에 관한 연구
(김영한·김진호·김갑성)
- 03-R4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연구(길은배·한만길·최영표·강영해·오해섭·김학성)
- 03-R46 학업중단청소년의 진로준비 실태분석 및 취업지원 방안
(이경상·조혜영·박창남)
- 03-R47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교육시설 특성화방안
(김정주·김진호·소병조)
- 03-R48 월드컵현상을 통해 본 신세대의 사회 문화적 정체성과
청소년정책의 과제(이종원·이경상·김종길)

- 03-R49 청소년 책읽기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이춘화·서정아·김상현)
- 03-R50 선진국형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
(김영지·전경숙·김민)
- 03-R51 청소년정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9회 청소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수상집 모음집-
(황진구·강명숙·임지수)
- 03-R52 2003특성화 수련거리개발 [3]-청소년마을체험
(윤철경·이은경)
- 03-R53 2003특성화 수련거리 개발 [6]-국제언어캠프
(김선미·김호숙)
- 03-R54 2003특성화 수련거리 개발 [7]-환경음식만들기
(서정아·최경학)
- 03-R55 청소년 단체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맹영임·
이광호·김민·임연희)
- 03-R56 연령대별 외국청소년 정책비교 및 정책 대안(윤철경·이상오·
황성하·서수경)
- 03-R57 청소년 개발 지표개발 및 활용방안(김진호·송병국·
임영식·김진화·오해섭·윤명희·정효진)
- 03-R58 선진 각 국의 청소년 보호체계 사례조사(우정자·
김문섭·최종혁)
- 03-R59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 장기발전계획 수립연구
(함병수·임지연·김종두)
- 03-R60 청소년 국제교류 정보네트워크 구축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조혜영·최원기·임지연)
- 03-R61 청소년수련시설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마련
(황진구·김경준·이춘화·최창욱)
- 03-R62 인천시 청소년수련관 운영방식 연구(김경준·함병수·
김영한·최창욱)

연구보고 03-R 17

가정복귀 가출청소년들의 귀가요인 분석 및 가출청소년지도 방안모색

인 쇄 2003년 12월 15일

발 행 2003년 12월 15일

발 행 처 :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 행 인 : 권 이 중

등 록 : 1993. 10. 23 제21-500호

인 쇄 처 · (주)계 문 사 TEL. (02)725-5216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02)2188-8877(자료실)

ISBN 89-7816-479-X(93330)

공 백

연구보고 03-R 17

가정복귀 가출청소년들의 귀가요인 분석 및 가출청소년지도 방안모색

-가출경험 대학생과 가출청소년전문가를 중심으로 -

연구자 : 방은령(한서대학교 교수)

한국청소년개발원

공 백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5
II. 이론적 배경	7
1. 청소년 가출의 개념과 원인 및 유형	9
2. 청소년의 가출 및 가정복귀실태 및 지도현황	13
III. 연구방법	19
1. 연구대상	21
2. 조사도구	24
3. 자료처리	27
IV. 연구결과	29
1. 예비조사결과	31
2. 심층면접대상자들에 대한 면접결과	44
3. 가출청소년전문가에 대한 심층면접결과	62
V. 결 론	99
1. 요약	102
2. 가정복귀가출청소년들의 귀가요인	107
3. 가출청소년지도를 위한 대처방안	109
참고문헌	115
부 록	121

표 차 례

<표 1> 가정복귀 가출청소년 심층면접대상자 인적사항	23
<표 2> 가출청소년전문가 인적사항	24
<표 3> 청소년대상면접의 질문구성과 내용	25
<표 4> 가출청소년전문가 대상 면접의 질문구성과 내용	26
<표 5> 예비조사대상자의 성별과 연령범위 및 가출경험 유무	31
<표 6> 처음 가출을 한 시기(N=65, 100%)	32
<표 7> 처음 가출을 하게 된 이유(N=65, 100%)	33
<표 8> 첫 가출 지속기간(N=65, 100%)	33
<표 9> 첫 가출 동안 지낸 곳 (N=65, 100%)	34
<표 10> 첫 가출 후 집에 돌아온 이유(N=65,100%)	34
<표 11> 가출한 동안 생활비 마련 (N=65, 100%)	35
<표 12> 가출한 동안 청소년쉼터의 도움을 받은 경험 (N=65, 100%)	36
<표 13> 가출한 동안 청소년상담실의 도움을 받은 경험 (N=65, 100%)	36
<표 14> 가출한 동안 경찰서의 도움을 받은 경험 (N=65, 100%)	37
<표 15> 가출한 동안 종교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험 (N=65, 100%)	37
<표 16> 조사대상자들의 재 가출 경험 유무(N=65, 100%)	38
<표 17> 평균 재가출 회수 (N=23, 100%)	38
<표 18> 재 가출을 한 이유 (N=23, 100%)	39
<표 19> 재가출을 한 경우, 평균 가출지속기간(N=23, 100%)	39
<표 20> 재가출 기간 동안 주로 지낸 곳 (N=23, 100%)	40
<표 21> 가출경험자들이 최종적으로 집에 돌아온 시기 (N=65, 100%)	41
<표 22> 최종적으로 가정에 복귀하게 된 원인(N=65, 100%) ...	42
<표 23> 공부(대학진학)를 다시 하게 된 계기(N=65, 100%) ..	42

<표 24> 우리사회에서 가출청소년들에게 가장 위험한 요소 (N=65,100%)	43
<표 25> 가출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N=65, 100%)	44
<표 26> 심층면접 청소년대상자들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	45
<표 27> 심층면접 대상자들이 처음 가출을 하게 된 원인	49
<표 28> 첫가출에서 가출지속기간, 가출장소 및 가정복귀 이유	49
<표 29> 심층면접청소년들의 재가출이유, 재가출지속기간, 재가출장소	51
<표 30> 재가출시 도움을 받은 곳과 생활비 마련	51
<표 31> 최종 가정복귀 시기 및 가정복귀 이유	53
<표 32> 심층면접 청소년들이 대학을 진학한 이유	54
<표 33> 가출시 가장 도움이 된 것과 힘들었던 점	58
<표 34> 가출청소년에게 위험한 요소, 필요한 것, 지도대책 ...	59